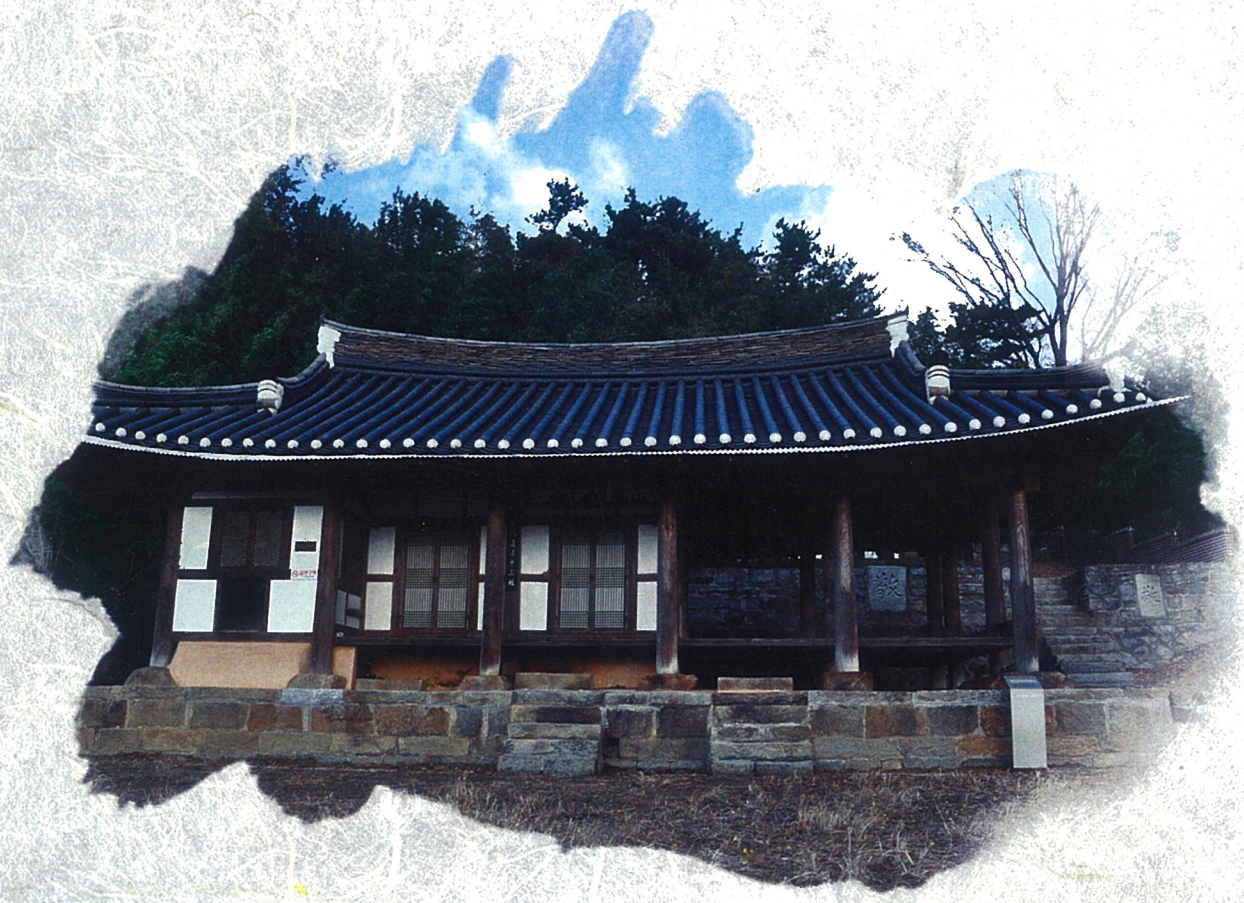
근·현대역사 토론대회

정읍의 동학농민혁명·의병운동
항일민족운동을 중심으로



- 일시 : 2015년 10월 24일(토) 오후 1시
- 장소 : 정읍시 여성문화관 1층
- 주최 : 정읍문화원
- 후원 : 정읍시 CJ 헬로비전

일제강점기 정읍지역의 민족운동

김재영 (사)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사장

태인의병[丙午倡義]의 핵심인물, 최익현(崔益鉉)과 임병찬(林炳瓚)

1896년 음력 3월 전남 장성에서 시작된 전기의병은 나주에 영향을 주었고, 이들은 광주에 집결하여 북상을 도모했다. 장성의 의병봉기는 기우만(奇宇萬)을 중심으로 한 노사학파 문인들이 주도하였다. 이들은 근왕(勤王)을 목적으로 반개화·반침략투쟁을 전개하였다. 물론 근왕의 사상적 연원은 위정척사(衛正斥邪) 사상이었다.

호남의병 사상에 큰 영향을 미친 사람은 노사학파(蘆沙學派)의 태두 '기정진(奇正鎭)'이다. 그는 전라도에서 주로 활동한 학자로 조선시대 '성리학의 6대가' 또는 '근세 유학의 3대가'로 평가받을 정도로 학문이 깊었다. 기우만은 노사 기정진의 손자로 노사학파의 학풍을 계승했으며 고향인 장성에서 기삼연(奇參衍)·고광순(高光洵) 등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기우만은 동학농민혁명을 '동비(東匪)의 난리'라고 표현할 정도로 철저한 척사론자였다. 그는 나주에서 동학군을 물리친 것을 기념하는 '토평비문(討平碑文)'을 지어주었으며 '향음주례(鄕飮酒禮)'를 거행하여 향촌사회의 주자학적 질서를 강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에 반해 을사늑약 체결을 계기로 일어난 중기의병은 국가와 민족을 지키기 위하여 의병을 도모하였다. 중기 의병장들은 대부분 유생이었지만 성리학적 명분론을 극복하면서 반침략적 '보국의병'을 목표로 삼았다.

태인의병, 상소운동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하다

호남지역 의병운동의 첫 도화선이 된 것은 을사늑약 체결 이후, 최익현(崔益鉉/1833~1906)의 태인의병(무성서원 의병봉기)이었다. 이 거의에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 낙안군수를 지냈던 임병찬(林炳瓚/1851~1916, 정읍 태인)이었다.

그가 굳이 태인에서 의병을 일으킨 데에는 춘우정(春雨亭) 김영상(金永相)의 권유

와 태인 주변에 많은 유학자들이 있어 크게 호응할 것이란 점, 그리고 그의 선조인 최치원(崔致遠)을 모시는 무성서원이 있기 때문이었을 것이다.

태인의병은 한마디로 최익현(崔益鉉)이 맹주를 하고, 임병찬(林炳瓚)이 주도한 것이었다. 하지만, 이들의 전투 활동이 거의 눈에 띄지 않는다. 이들의 거병목표가 전주를 거쳐 북상하여 서울에 포진한 일본세력과 외교적 담판을 벌여 그들을 몰아내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담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호남의 거읍 한 곳을 점거하고 위세를 떨치면서 영남과 호서, 영서 등지의 다른 지역에서 위세를 떨치고 있는 의진들과 기각의 형세를 이룬다면 일본이 위세에 밀려 이 담판에 응할 것으로 보았다. 하지만, 호남의 거읍인 나주, 남원, 광주 등 어느 한 곳에도 들어가지 못한 채 순창에서 남원과 전주 진위대 병력의 공격을 받게 된 것이다.

태인 중심의 보수적 양반과 전라도 출신 유생들 1천 여 명이 준비에 가담한 뒤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자, 정부는 1906년 6월 11일 전주와 남원의 진위대를 급히 파견하였다. 1천명 이상의 의병부대는 전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사진1) 무성서원 전경(칠보면 무성리)/사진 제공: 정읍시청 문화예술과 서인석

태인의병은 상소운동에서 무장투쟁으로 전환하는 계기가 되었다는 점에서 의병운

동사에서 차지하는 역사적 의의가 크다. 다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와 다르게 임병찬이 명문거족 출신이 아닌 향리 출신이어서 전남 장성에서 의병봉기를 계획 중이던 송사(松沙) 기우만(奇宇萬)이 여기에 참여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쉬움으로 남는다. 황현의『매천야록(梅泉野錄)』에는 기우만이 최익현의 휘하로 들어가는 것을 원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송상도는『기려수필(騎驢隨筆)』에서 임병찬을 '용'에 비유하였다. "공은 한 번 변하여 향리가 되고, 두 번 변하여 군수가 되고, 세 번 변하여 학자가 되고, 네 번 변하여 의병이 되었으니 용이 아니고서야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겠는가?" 라고 극찬하였다.

전라북도 곳곳에서 의병이 일어나다

한편, 남원에서는 1907년 2월 13일 양한규(梁漢奎/1844~1907)가 남원성에 입성, 광한루에 본진을 두고 있던 일본군과 진위대를 급습하였다. 이에 놀란 일본군이 성 밖으로 도주하자 무기와 군수품을 접수하는 전과를 올렸으나 도주하는 적을 추격하던 중 유탄에 맞아 숨졌다.

익산 유생 이규홍(李圭弘/1881~1928)은 유지명(柳志明)과 함께 11월 초 봉기하여 주로 전북 북부의 산간 지역에서 일본군과 전투를 벌였으며, 강재천은 1906년 9월 임실에서 3백여 명의 의병을 일으켰다.

호남지방 후기의병의 기점은 1907년 10월에 봉기한 기삼연(奇參衍)의 '호남창의회맹소'로, 이와 연관을 맺은 박도경(1874~1910, 고창), 김공삼(1865~1909, 고창 고수), 이석용(1877~1914, 임실 성수), 전해산(1879~1910, 임실 남면) 등이 의병장으로 참여하였다. 이 가운데 임실 의병장 이석용은 당시 전주의 유학자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강론을 들었다고 한 것으로 미루어보아 호남지역 일부 유생들은 전우로부터 사상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하지만, 전우 자신은 의병운동과는 거의 무관한 인물이었다. 앞서 최익현이 거의하고자 편지를 보냈을 때도 간재는 호응하지 않았다. 그는 학문적으로는 주리론과 주기론 양자를 모두 배척하는 절충적인 입장에 있었다. 그는 성리학에 밝고 문장에 능하였으나 실천적인 입장에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이 같은 의병봉기 당시의 정치적 상황은 고종황제 퇴위를 시작으로 한일신협약, 군대해산으로 이어져 정국은 이미 혼란 상태였으며, 이러한 위기가 계속되자 수많은 의병장들이 일어나면서 1908년과 1909년 사이에 호남은 '의병항쟁의 중심지'로 떠올랐다.

호남지방에서 1908년 의병활동 교전횟수로는 전국의 25%, 교전의병 수로는 24.7%를 차지했고, 1909년에는 교전횟수로 전국의 47.6%, 교전의병 수는 60.1%를 차지해, 전라도 지방이 의병활동의 중심무대였고 전라도인들이 구국의 선봉역할을 담당하였다. 후기의 전북의병의 활동은 고창에서 김영백·정대홍, 정읍에서 윤철용과 이평해, 순창에서 기춘호·이해수·양순영, 익산의 이규홍, 무주에서 문태서와 김동신, 임실에서 이석용·전해산, 덕유산의 이사임, 지리산의 황좌규 등이 뒤를 이었다.

이들 후기 의병장들이 발표한 격문은 '보국안민(輔國安民)', '애국구민(愛國救民)', '위국보민(爲國保民)' 등의 표현이 많이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이들이 의병을 일으킨 목적이 위국과 함께 제민(濟民), 안민(安民)에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후기 의병을 주도한 수많은 의병장들은 활동지역 내의 주민들을 위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예컨대 납세거부 투쟁, 세무관리의 징세 저지, 부호의 토색(討索) 방지, 미곡의 일본 유출 금지 들을 주도하였다.

이밖에 최익현의 태인의병에 가담했던 고창 신림 출신의 고석진(高石鎭), 고예진(高禮鎭), 고순진(高舜鎭), 고제만(高濟萬) 등은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독립을 청원하는 한국유림독립운동파리장서(대표 김창숙)에 서명하였다. 이 가운데 고석진은 태인의병 당시 임병찬을 면암에게 추천한 인물이었다. 최익현이 의병을 일으킬 당시 포수를 모으고 지휘를 맡았던 양윤숙(梁允淑/1875~1910)은 1907년 10월경부터 순창을 중심으로 의병활동을 재개하였고, 같은 순창 출신인 신보현(申甫鉉)은 1907년부터 1909년까지 순창을 무대로 일본군과 유격전을 벌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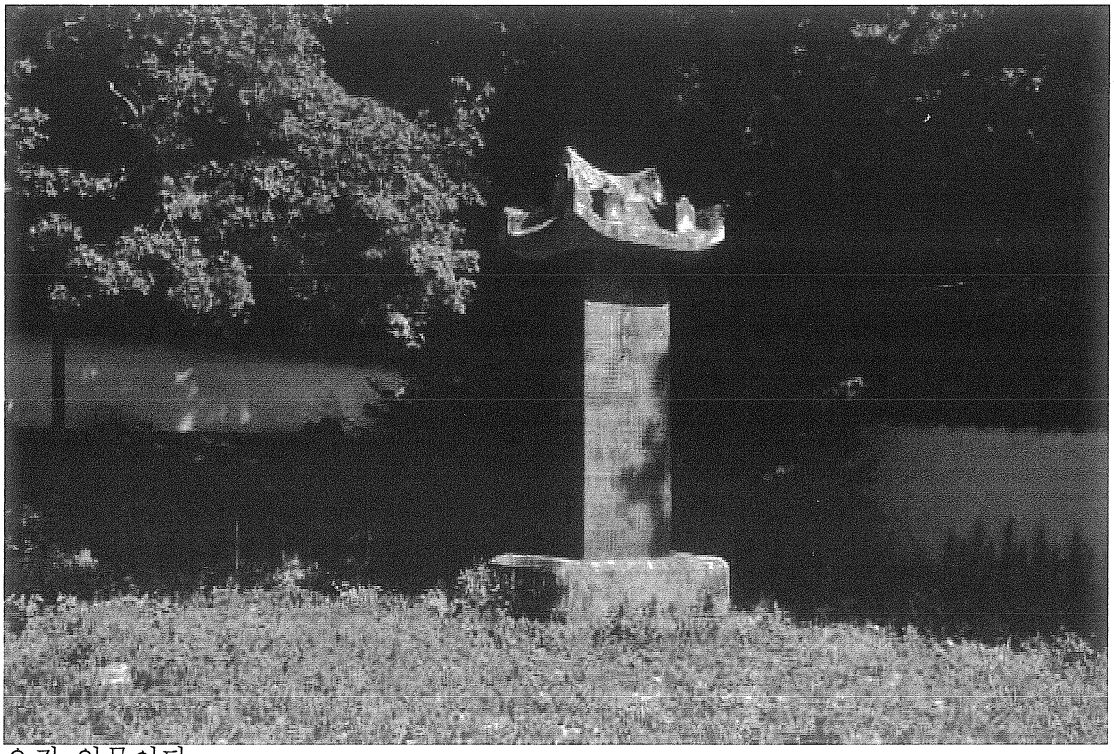
이와 같이 의병은 대부분 유생층이 지도부를 이루었으나, 사실은 동학농민혁명과 함께 농민이 주체가 된 무장 항쟁이었다. 다만, 동학농민혁명이 반봉건혁명으로서의 성격이 강한데 비해, 의병운동은 일본의 침략이 한층 더 본격화되는 시점에서 일어난 만큼 반침략전쟁의 성격이 더 강하였다.

태인의병의 영향으로 의병이 전국으로 확산되다

태인의병은 1907년 후반에 시작된 후기의병 봉기에 기폭제 역할을 하였다. 전라도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태인의병의 영향이 퍼졌다. 쓰시마 섬에 끌려간 최익현 일행이 온갖 고초 끝에 순국한 사실이 널리 알려졌기 때문이다.

태인의병의 영향을 받아 전남에서도 의병이 봉기하였다. 최익현의 뜻을 계승한 인물로 백낙구·기우만·고광순·이항선 등과 강재천·기우일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강재천(姜在天)은 1906년 9월 임실에서 거병하여 운봉과 남원, 장성 등지를 무대로 활약했다. 그는 "최익현을 쓰시마 섬에서 환국시키고 국권을 회복하기 위해 거의했다."고 천명했다. 고경명의 후손인 고광순(高光洵)은 태인의병에 참여하려다 좌절되자 백낙구(白樂九) 등과 연합하여 의병을 도모하다가 발각되었으나, 1906년 12월 드디어 의병부대를 결성하여 활동하다가 지리산 연곡사에서 전사하였다. 1907년 4월 전남 능주에서 의병을 일으켰던 양회일도 최익현의 영향을 받았다. 태인의병에 가담했던 양윤숙(梁允淑)도 다시 의병을 일으켜 주로 순창을 중심으로 활발한 대일투쟁을 벌이다 1909년에 체포되어 이듬해에 순국하였다. 임실의 이석용과 전수용 또한 최익현에게 사숙한 유생들로 호남지역 후기의병을 주도한 대표적인 인물들이다. 진주의 노응규(盧應奎) 역시 태인의병에 합류했다가 해산된 후 다시 의병을 일



으킨 인물이다.

사진2) 최익현과 임병찬을 모셨던 하청사(河靑祠). 현재는 동의기념비만 남아 있다(산외면 오공리 야정마을)/사진 제공: 정읍역사문화연구소

태인의병은 을사늑약 후 우리 전북도내에서는 최초로 일어난 항일의병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최익현이 거의함으로써 여타 지역 의병봉기에 큰 파급효과를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뿐만 아니라 태인의병에 참여한 사람들의 다수가 독립의군부에도 가담하였다. 이는 의병이 독립군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독립의군부는 임병찬을 비롯한 태인의병의 핵심인물들이 주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의병이란 명칭 대신에 독립의군을 사용한 것으로 보아 그러하다. 전라북도의 후기의병을 이끌었던 진안 출신의 이석용이 주도한 '임자밀맹단'도 의병계열의 비밀결사였다.
태인의병은 약 1천명이라는 규모의 의진을 결성하고서도 이렇다 할 활동을 전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태인의병의 절반이 유생들이었으며 무기를 소지한 자가 200~300명에 불과했기 때문이다. 그런 까닭에 태인의병은 장기화하지 못하고 열 흘 만에 종식된 것이다. 따라서 태인의병은 무장투쟁보다 시위활동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적인 평가도 있다. 하지만, 포수의 모집과 무기의 수습, 전술의 개발에 힘을 기울인 점 등을 높이 평가해야 할 것이다.

최고령 의병장, 최익현의 척사위정사상(斥邪衛正思想)

면암 최익현(1833~1906)은 경기도 포천의 가채리에서 지헌(芝軒) 최대(崔岱)의 아들로 태어났다. 본관이 경주이고, 자는 찬겸(贊謙), 호가 면암이다. 최익현은 이항로(李恒老)의 제자로 스승이 써 준 두 글자인 면암을 호로 삼은 것이다. 그가 활동하던 시기는 일제에 의해 강화도조약이 체결되고 점차 식민지화의 길을 걷던 시기였다. 이항로의 척사위정론이 성리학의 본말론에 입각하여 내수(內修/국내 정치를 잘 다스리자는 뜻)에 그 비중이 있었다면, 최익현의 척사운동은 외양(外攘/외적을 물리치자는 뜻)의 구체적 방법을 모색했다는 데 차이가 있다. 그는 이항로의 척사위정사상을 계승하여 척왜의 상소운동을 폈으며, 1905년 일제가 을사늑약으로 국권을 침탈하자 국권회복을 위한 의병운동을 일으켜 민족적 저항운동을 전개하였다.



사진3) 최익현(1833~1906)

최익현은 이항로와 같이 문화적으로 화이(華夷)를 구분하고, "서양의 족속은 오랑캐보다 못하니, 진실로 금수이면서 사람의 모양을 한 것이다."라고 보았다. 그리고 그는 "지금 왜인이 양복을 입고 양포를 사용하여 양선을 탄 것은 모두 왜와 양이 일체라는 명확한 증거"라고 규정하고 '왜양일체론'를 주장하였다. 일본과 화약을 맺는 것은 곧 양적(洋狄)과 화약을 맺는 것과 다름없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최익현은 일본과 강화를 반대하기 위해 도끼를 들고 엎드려 궁궐 앞에서 상소[지부복궐척화의소/持斧伏闕斥和議疏]한 것이다. 도끼를 들고 상소한 것은 임진왜란 직전에 지부상소를 올린 중봉(重峯) 조헌(趙憲/1544~1592)의 예를 따른 것이었다. 최익현은 제국주의적 침략의 본질을 명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

1905년 을사늑약은 조선을 반식민지화한 것이었다. 이에 최익현은 고종에게 매국노 이완용 등의 5적을 토멸(討滅)할 것과 을사늑약이 무효임을 선언하고 외교적인 해결을 모색할 것을 촉구하였다. 그는 또한 「포고팔도사민(布告八道士民)」의 격문을 발송하여 전 국민이 일치단결하여 왜적과 항쟁할 것을 호소하였다.

최익현은 망국의 신하된 자가 처신해야 할 도리를 "은나라의 미자(微子)와 같이

버리고 가는 자와, 명나라의 범경문(范景文)과 같이 죽는 자와, 송나라의 문천상(文天祥)과 같이 적을 토벌한 자로 구별하고 드디어 1906년 태인에서 거의하였다. 당시 나이 74세였고 그 생애의 마지막 해였다. 충청남도 청양의 모덕사(慕德祠)에 배향되고 포천·해주·고창·곡성·화순·무안·함평·광산·구례 등지에 봉향되어 그의 높은 지조와 절의를 기리고 있다. 1962년 대한민국 건국 공로훈장 중장이 수여되었다.

임병찬, 의병에서 독립군으로 전환하다

임병찬은 전라북도 옥구현 서면 대사리 남산(옥구군 서면 상평리 남산제)에서 1851년(철종2) 2월 5일에 용래(溶來)와 송악(松岳) 왕씨의 장남으로 태어났다. 자가 시중(時中)인데 뒤에 중옥(中玉)으로 고쳤다. 호는 돈헌(遯軒)이고 본관은 평택이다.

아버지는 처음 나주 나씨를 부인으로 맞이하였는데 아들이 없이 죽었으므로 송악 왕씨를 재취로 맞이하였다. 40이 넘도록 후사가 없어 병하(炳夏)라는 조카를 양자로 삼았다. 43세에 병찬을 낳았는데 또 왕씨 부인이 병찬의 나이 12살 때에 죽었기 때문에 다시 23년 연하인 파평 윤씨를 삼취로 맞이하였다. 그의 양형(養兄) 병하는 돈헌이 13살 때에 후사 없이 죽었고 계모 파평 윤씨가 낳은 아들 병대(炳大)는 그의 아버지의 회갑 해에 태어났다.

돈헌의 가계는 명문거족이라는 이야기가 있으나 실은 향촌에서 양반으로 행세하기 버거운 가문이었다. 마을 사람들도 그들을 양반으로 대접하지 않았다. 돈헌은 그러한 처지에 있었지만 재주가 남달라서 4살에 아버지 밑에서 천자문과 추구(推句)를 배웠다. 5살 때에는 사숙(私塾)에 들어가 사자소학과 오언당서(五言唐書)를 배웠다. 6살 때에는 집에 사숙을 차리고 스승을 초청하여 배웠다. 그는 하루에 『자치통감(資治通鑑)』 30줄을 외우고 5언을 능히 지을 수 있었으며, 7살 때에는 통감을 하루에 200줄씩 배우고 외워 고을에서는 신동이라고 칭찬이 자자하였다. 8살 때에는 고을 백일장에서 장원을 하였으니 그의 재예를 짐작할만하다.

그는 15살에 임천 조씨와 결혼하였다. 부인은 함열에 사는 준극(浚極)의 딸로서 그보다 5살이나 위였는데 불행히도 이듬해 2월에 죽었다. 그 해 12월에 16살로 재취 장가를 갔는데 새 부인은 태인 매죽에 살고 있던 여산 송씨 상희(祥喜)의 딸로 역시 3살 위였다. 이 때 전주 향시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1867년 17살 되던 해에 그

는 옥구현의 형방(刑房)으로 들어갔다. 그로부터 아전생활을 몇 년 동안이나 했는지 기록이 없으나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죽은 1877년까지는 계속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1882년(고종19) 32살에 태인현 산내면 영동으로 이거하였다. 그가 고향을 떠나 깊은 산골로 이사한 이유는 임오군란이 일어난 것을 보고 숨어살려는 뜻이 있었기 때문이라고도 한다. 이때 돈헌의 일문에서 8명과 처족인 송씨가에서 2명이 같이 이거하였다.

한편, 그는 1886년(고종23)에 전라도의 대동리(大同吏)가 되어 전주감영에서 근무하게 되었다. 그런데 그 해에 정부에서는 전라도 거문도에 진을 설치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그 감독관을 전라감사에게 천거하게 하였던 바 감사 이헌직(李憲稷)이 도내 유림의 추천을 받아 돈헌을 천거하였다. 그리하여 그는 감독관이 되었고 이로부터 관직생활을 시작하였다.

거문도는 남해안에 있는 섬인데 1885년 3월에 영국함대가 무단 상륙하여 점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그때 정부에서는 영국에 항의하고 또 현지로 사신을 보내어 그의 철수를 엄중하게 명령하였으며 그리하여 영국 함대는 그 해에 거문도에서 철수하였다. 이런 일이 있었기 때문에 다음해인 1886년에 정부에서는 그 섬에 진을 설치할 계획을 세웠던 것이며 그런 만큼 이 설진(設鎭)공사는 그 의의가 컸던 것이다.

아무튼, 그는 거문도 설진감독관으로서 성심성의 진력하였고 그리하여 공사가 원만하게 이루어졌다. 이에 조정에서는 그의 공을 포상하여 1889년(고종26) 그에게 절충장군첨지중추부사겸오위장(折衝將軍僉知中樞府事兼五衛將)을 제수했다. 아울러 예에 따라 그의 선대 3대를 추증하는 은전을 주었다.

이어서 그 해 7월에 그는 낙안군수겸순천진관병마첨절제사(樂安郡守兼順天鎭管兵馬同僉節制使)에 제수되어 바로 부임하였다. 그리하여 임낙안(林樂安)이라 호칭한다. 그는 먼저 아전들의 폐를 없애어 백성들에게 행패를 부리지 못하게 하였다. 그리고는 1884년(고종21) 이래로 체납된 세금 6만7천 냥과 쌀 1천8백여 석을 추징하여 적폐를 일소하는 업적을 남겼다.

그런데 그는 1890년(고종27) 4월에 군산진, 6월에 성당진, 7월에 법성포진의 겸관(兼官) 사관(査官)을 겸하게 되었다. 당시의 국법에 겸관은 임지로부터 50리 이내에 국한하게 되어 있는 진의 겸관을 그것도 한꺼번에 세 곳이나 겸하게 된 것이었다. 그러나 그는 아무런 불평 없이 책무를 다하고 그 해 9월에 만기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다. 그때 낙안 군민은 그의 유임을 진정했으나 만기로 체임되어 정부에서 들어주지 않았다.



사진4) 대한독립의군원수부사령총장돈헌임선생지묘(산내면 종성리)
사진 제공: 동학역사문화연구소

집에 돌아온 그는 3년 뒤 1893년 2월 산내면 종송리로 이사하였다. 이 마을은 순창군 접경의 회문산 아래 해발 400미터가 넘는 높은 산 속에 있는 천혜의 피난터였

다. 그가 이곳으로 이사한 것은 피난터로 알맞고 또한 후일을 기하여 후진을 양성하는 데에 가장 알맞은 곳이라고 보았기 때문인 듯하다. 실제로 그는 공자를 모신 사당과 홍학재라는 학당을 지어 놓고 모여 든 제자들을 가르쳤는데 단순히 학문만을 익히게 한 것이 아니고 활쏘기와 말타기까지 무예를 익히게 하여 후일에 대비하였다. 본래 이 마을에서는 7호가 살았을 뿐인데 그가 이사한 뒤에는 70호에 인구도 수 백 명에 이르게 되었다. 그 대부분은 그를 따라 모여든 제자들이었다.

임병찬은 1913년 9월 이용순(李龍順), 전용규(田瑢圭) 등과 함께 독립의군부를 조직하였다. 독립의군부는 경성에 중앙 순무총장을 두고, 각 도에 도 순무총장, 각 군에 군수, 면에 향장을 배치하였다. 이들은 내각 총리대신과 총독 이하 대소 관리들에게 국권반환 요구서를 내고, 한편으로는 한인이 일본의 통치에 열복하지 않고 있음을 대외적으로 밝히고 국민에 대해서는 국권회복의 여론을 일으키려고 활동하다가 검거되었다. 거문도로 유배되어 그곳에서 유배생활을 하다가 1916년 66세를 일기로 생애를 마쳤다.

기록에는 전해지지 않으나 돈헌의 재산 약 5백여 석이 모두 의병들의 활동을 위해 쾌척되었다고 전해지며, 그 재산이 의병들의 군량과 화승총 구입 등의 무장에 쓰여 졌다고 전해진다. 그들 휘하에 모여든 의병의 수가 2백여 명에 이르렀다고 전해진다. 그 모두가 태인·정읍·순창·곡성 등지에서 면암과 돈헌의 충정에 감복한 백성들에 의해 조직된 의병들이라 했다.

임병찬은 3대가 독립유공자로 표창을 받았다. 동생인 임병대(林炳大)는 1996년 건국포장을, 아들 임응철(林應喆)은 1990년 건국훈장을, 손자인 임주명(林周明)은 1992년에 건국포장을 각각 수여받았다. 3대가 독립운동에 헌신한 공로를 인정받은 것이다.

조선 선비정신의 표상, 춘우정(春雨亭) 김영상(金永相)

본관은 강진, 자는 승여(昇如)이고, 호는 춘우정(春雨亭/1836~1911)이다. 조선개국원종일등공신, 충민공 김회련(金懷鍊)의 후손이다. 1836년 고부군 수금면 산북리(현 정우면)에서 출생했다. 16세 되던 해에 선대가 살던 태인 고현내면 무성리 원촌마을(현 칠보면)로 돌아왔다. 1871년(고종8) 봄 노사(蘆沙) 기정진(奇正鎭)을 찾아보고, 1885년에는 인산(仁山) 소휘면(蘇輝冕)을 찾아 수업했다. 전주 간재(艮齋) 전우(田愚)와는 학문을 논하고 서로 왕래가 잦았다. 1889년 인산이 영면(永眠)하자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무성서원(武城書院)에서 강학을 하는 한편 선생의 문집발간에 힘썼다.

일본 천왕의 은사금을 거절하다

1906년 6월 4일 최익현(崔益鉉)이 무성서원에서 임병찬(林炳瓚)과 함께 창의를 도모할 때 무성서원의 장의로 있었다. 최익현과 여러 차례 의논하고 창의를 발의하면서 자신은 지역의 유생들이 참여하도록 독려했다. 면암이 창의를 결심하자 그는 총참모장이 되어 수많은 유생들을 끌어들였다.

1906년 면암의 무성창의에 손자 김균(본명은 김환각으로 대동천자문 저자)과 함께 순창의 접전지까지 나갔으나 70 노령에 신병으로 부득이 집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면암이 쓰시마섬(對馬島)에서 순국하자 다음 해 5월 칠보면 시산리(현 칠보초등학교)에 태산사(泰山祠)를 세워 면암의 영정을 봉안하였다.

1910년 나라가 일본에 망하자 10월 10일 일왕의 이른바 은사금 사령서가 면장을 통하여 전달되었다. 절의가 있는 선비들을 은사금이란 명목으로 매수하려는 일제의 간계(奸計)였다. 일제는 분노한 조선 민심을 달래기 위해 조선의 명망있는 유학자들에게 은사금을 내렸는데 춘우정이 그 중 하나였다.

조카 명술(命述)이 은사금의 일로서 춘우정에게 물으니 "유학자로서 원수의 돈을 받겠느냐. 이미 받아서는 아니 된 즉 의리상 가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였다. 조카가 또 물었다. "저들이 만약 합방의 가부를 묻는다면 뭐라고 답할까요."하니 "우리나라 국민은 너희와 더불어 같은 하늘아래 살 수 없는 원수이니 옳고 그름을 물을 바가 아니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 외에는 무엇이 있겠느냐."라고 대답하였다. 춘

우정은 끝내 거절했으나 여러 차례 사령서(통지서)가 전달되자 크게 성을 내면서 말하기를 "나는 대한 신민의 이름으로 오랑캐 원수가 주는 돈을 문적에 이름을 둘 수 없다."하고서 드디어 김영상 이름 석 자를 찢어버렸다. 일설에는 춘우정은 울분을 참지 못하고 "내가 일본 일왕의 간을 씹어 먹어야 하는데 그리 못하니 대신 너라도 먹어야하겠다."라면서 일본 순사의 팔뚝을 물었다는 일화가 전해지고 있다. 춘우정은 1911년 4월 일왕의 사령서를 훼손했다는 불경죄로 군산감옥으로 넘겨지게 되었다.


사진5) 춘우정 김영상 선생 순국 추모비(칠보면 무성리)

5월 6일 동곡리 헌병대가 출발하여 태인에서 하룻밤을 지내게 되었는데 7일 김제에서 밤을 지내고 8일 만경을 지나 사창진(사챙이 나루)를 건너게 되었다. 나룻배가 한가운데쯤에 이르렀을 때 춘우정은 물속으로 몸을 던졌다. 이때 춘우정은 옆에 있는 손자 김균에게 옷고름에 쓴 절명사를 던졌던 것이다. 이에 당황한 왜병들이 물속에 뛰어들어 춘우정을 구했으나 그는 "나는 굴원대부(屈原大夫/물에 빠져 죽은 초나라 충신)를 만나보려 하는데 너희들이 어찌 내 가는 길을 막느냐"하고 물속으로 다시 몸을 던지려 했다. 이러한 춘우정의 투수하는 장면을 생생하게 그린 춘우정투수도가 전하는데, 이를 그린 화가는 고종황제 어진을 그린 석지 채용신이다. 이때 춘우정은 곧바로 군산감옥에 옮겨져 수감되었지만, 일본천황의 음식을 거절하고

8일 간의 단식 끝에 결국 1911년 5월 9일 향년 76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춘우정 김영상은 1963년 독립유공 대통령포장에 서하고 1991년에 건국훈장 애국장을 추서하였다. 1978년 6월 지방 인사들의 발의로 만경 사진 나루터 유지에 춘우정 김선생 투수순절비를 세웠다. 전면 글씨는 강암 송성용이, 후면글씨는 아산 송하영이 글씨를 썼다. 채용신이 그린 '투수순절도(投水殉節圖)'는 칠보 태산선비문화사료관에 전시되어 있는데, 이 그림은 1910년대의 배의 모양과 복장, 집의 구조와 장독대, 서식 생물 등을 연구하는데 좋은 자료이다. 춘우정 김영상이 살았던 무성리 원촌마을 옛집은 그의 5대손 김장운이 현재 살고 있다.



사진 6) 어진화가 채용신이 그린 투수순절도

사진 제공: 전라금석문연구소장 김진돈

필양사에 영정을 보관하다

1911년 5월 춘우정이 군산감옥에서 단식하여 순절하자 9월에 일본 헌병 장전(長田)이 문고와 일기, 제문, 만장 등을 빼앗아갔다. 이후에 발견되는 유고를 차곡차곡 모아 1961년 필양사 제생(諸生)인 김영채, 권오중, 김영대 등이 선생의 유고와 제문, 만사 등을 6권 3책으로 출간하였다.



사진7) 춘우정 김영상을 향사하고 있는 필양사(칠보면 무성리 원촌마을 초입)
사진 제공: 정읍역사문화연구소

문집 가운데 권5 '각금일기(卻金日記)'에는 일본 일왕의 은사금을 거절하는 내용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권6은 필양사에 영정을 봉안하며 올린 고유문(告由文), 축문 등이 주를 이루며, 마지막 부분에는 스승인 인산 소휘면과 간재 전우의 글씨가 인쇄되어 있다.

춘우정은 무성서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계속 강학을 하였다. 이는 공자의 제자 자유(子游)처럼 예악으로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를 통해서 대도(大道)를 이루고자 하는 열망이 있었기 때문이다. 또 「제생(諸生)귀가(歸家)」를 보면 겨울철에는 서로 만나 함께 동문수학하던 제자들이, 눈이 녹는 봄철이 되자 모두 돌아간 뒤의 쓸쓸

함과, 귀가해서도 학문에 정진하기를 바라는 스승의 바람이 들어 있다. 옛날 서당은 주로 겨울에 학습하고 새봄이 찾아오면 농사일을 하러 집으로 돌아갔기 때문이다.

민중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체가 되다

1920년대 민족해방운동이 활발한 지역은 대체로 3·1운동이 활발한 지역이었다. 또한, 민족해방운동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은 3·1운동에서 활약했던 인물들이 대부분이었다. 뿐만 아니라 농민·노동운동 등 기층 민중운동이 활발해지자 3·1운동의 시위 주동자들 가운데는 이에 주목하여 민중역량의 조직화 작업을 펼치고 새로운 이념을 모색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이와 같이 3·1운동은 민중이 민족해방운동의 주력으로 등장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의의를 갖는다. 따라서 1920년대 정읍지역 사회 부문운동을 살피기에 앞서 3·1운동에 가담했던 인물들의 계층과 성향을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읍 3·1운동의 주역, 이익겸과 박환규

1919년 3월 23일 정읍에서는 읍내 유지인 이익겸(李益謙)과 박환규(朴桓奎) 등이 천도교와 기독교인들과 의기투합하여 정읍 장날을 기해 시기리 김회근(金會根)의 집에서 태극기와 독립선언서를 뿌리며 1백여 명의 군중들이 시위 대열에 참여하였다.



이익겸과 박환규(정읍노휴제 백주년기념관)/사진 제공: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시위를 주도했던 이익겸은 이후 민립대학 집행위원과 형평사 정읍분사의 고문 그

리고 신간회 창립준비위원으로 활동했으며, 박환규는 평생을 배일사상을 견지하면서 시내에 군자정을 설립하는 등 사회문제 해결에 앞장섰다.



사진9) 항일운동 공적비(이익겸·박환규·류만규/정읍노휴제)/
사진 제공: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이들의 주도로 계획된 정읍 시위는 천도교와 기독교에서 전도형식을 가장하여 각 교인들에게 독립정신을 고취했으며, 부인들도 이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전날인 22일 이 사실이 일제에 의해 탐지되어 선언서와 태극기 그리고 '대한독립만세'라고 쓴 깃대 10장이 헌병대에 의해 압수되고 이익겸 등이 검속당하는 수난을 겪었다. 따라서 23일 당일 일제의 경찰과 헌병의 철저한 방해와 봉쇄에 부딪혀 겨우 1백 명이 만세만 불렀을 뿐 다음 단계인 시가행진을 전개하지 못하고 해산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이런 와중에서도 지사들의 움직임은 중단되지 않았다. 4월 2일 읍내 장날 덕천면의 송기룡(宋基龍), 박재구(朴在求)와 읍내의 도상철(都相喆), 박근수(朴根洙) 등을 선두로 한 만세운동이 일어난 것이다. 이 읍내 2차 거사를 전후해서 정읍 군내에서는 야간을 이용한 산발적인 만세운동이 이어졌다. 정읍은 태인에서 시작된 만세시위가 시내 죽림산의 산상시위로 운동의 양상이 바뀌지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사진10) 전북 출신 독립선언서 민족대표 박준승의 묘(정읍 성황산)
사진 제공: 정읍역사문화유적답사회 '면사고' 대표 박내철

여기에서 하나 특기할 것은 영원면 출신 나용균(羅容均/1895~1986)이 이 무렵 중국으로 건너가 상해임시정부 대의원으로 활약하기에 이르렀고, 그의 형 나홍균(羅鴻均)은 많은 운동자금을 임시정부에 제공했다는 사실이다. 영원면의 백정기(白貞基)도 고향의 3·1운동에 참여한 후 그 뜻을 멀리 일본, 중국, 만주등지까지 뻗쳐 마침내 일본 동경에서는 일본 천왕을, 중국 상해에서는 일본의 주중공사 아리요시(有吉明)의 폭살을 기도하는 등 우리 국내외 애국동포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태인 3·1운동의 주역, 김현곤

태인은 정읍보다 앞선 1919년 3월 16일 태인 장날을 기해서 만세운동이 일어났다. 이때 앞서 3·1운동 직전 고종 국상에 참여하기 위해 서울에 갔던 태인 청년 김현곤(金玹坤), 송연수(宋淵洙), 박지선(朴址宣) 등이 김성수, 송진우 등 전라도 출신 인사들을 만나 3·1운동의 계획과 선언서 등을 미리 입수, 고향사람 송한용(宋漢鎔), 송진상(宋鎭相), 오석홍(吳錫興), 송영근(宋榮根), 김진호(金鎭皓), 유치도(柳致道), 김

순곤(金淳坤), 송덕봉(宋德奉), 김진근(金鎭根), 백복산(白福山), 김용안(金龍安), 최민식(崔民植), 김부곤(金富坤) 등과 사전계획을 의논하였다.

16일 태인 장날에 거사하기로 했던 독립운동은 면서기 김현곤이 면사무소의 등사판을 이용하여 태극기와 독립선언서 수 천 장을 등사, 이날 장꾼들에게 나눠주면서부터 시작되었다. 군중들은 이들 청년지사들의 절규와 태극기를 받아들이고 일제히 만세를 부르기 시작하니, 그 수가 단번에 수 천 명에 이르렀다. 군중들은 만세를 외치다가 헌병주재소 등 일제 관공서로 몰려들었으며, 이 노도처럼 일어난 태인 시위에 일제 헌병들도 감히 손을 쓰지 못하고 관망만 한 채 온 시가와 노점 등이 모두 문을 닫은 채 철시(撤市)상태가 되기도 하였다.

이 운동에서 송진상, 김현곤 등 청년 5명이 일제에 의해 검속되었으며, 밤이 되자 시위는 다시 일어나 태인을 가운데에 두고 주위 사방 산마루에 횃불을 올리며 만세를 불렀다. 횃불시위를 신호로 태인의 민가에서 같은 시각 일제히 만세를 불렀으니 태인의 만세운동은 밤과 낮을 가리지 않았다. 그 만세의 물결이 그 후 십 여일을 두고 계속되었다는 사실에서 태인 항쟁이 얼마나 집요하고 용감했는가를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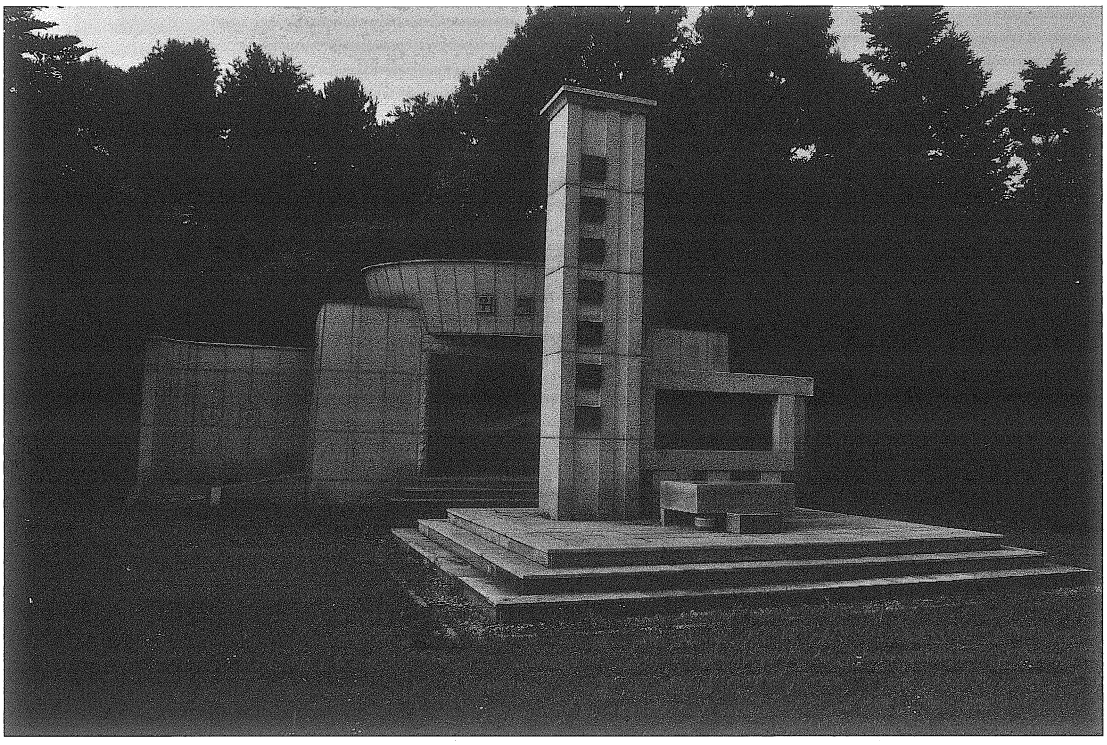


사진11) 만세시위가 있었던 성황산에서 내려다보는 항가산(가운데가 태인향교)

사진 제공: 정읍역사문화연구소

〈표1〉 태인지역 3·1만세시위 주동 인물 재판 결과

성명	출생연도	주소	판결결과	성명	출생연도	주소	판결결과
송연수	1895.12	증산리	징역 2년	김부곤	1901.5.7	태흥리	기소유예
김현곤	1900.3.3	태성학교 졸면서기	징역 1.6년	오철수	1899.5.22	태흥리	기소유예
송한용	1896.9.18	태흥리	징역10개월	김진근	1901.3.18	태흥리	기소유예
신영식	1899.9.6	태흥리	징역 8개월	최민식	1892.8.10	옹동면 칠석리	태형 90도
송진상	1900.2.15	태흥리	징역 8개월	김진호	1894.9.25	태흥리	태형 90도
송덕봉	1895.10.8	태흥리	징역 8개월	김용안	1887.4.11	태성리	태형
백락두	?	보교교사	징역 8개월	김승권	1902.12.24	옹동면 매정리	구류 20일
박지선	1894.5.20	태성리	징역 6개월	송순용	1882.9.9	태흥리	구류 20일
송영근	**1896.7.20**	**태흥리**	**징역 6개월**	윤상홍	1850.2.28	궁사리	구류 20일
백복산	1890.1.28	태성리	징역 6개월	권사옥	1883.10.5	옹동면 매정리	구류 20일
오석흥	1893.1.9	태성리	징역 6개월	송문상	1896.12.2	태남리/오성학교학생	무죄
유치도	1901.3.14	태흥리	징역 6개월	김달곤	1896.8.6	태흥리/오성학교학생	무죄/병보석 5일뒤 사망
송근상	1893.7.22	전농1회	징역 6개월				

*출전: 최현식, 『정읍항일운동사』, 정읍문화원, 1994, 167~168쪽; 주명준 · 정옥균 편저, 『전북의 3 · 1운동』, 전북인권선교협의회, 2001, 93쪽.

이 태인 만세운동으로 일제의 헌병과 경찰에 검속된 군중이 80여 명에 달했으며, 그 중에는 태인보통학교 훈도 김승호(金昇鎬), 곽장열, 옹동면의 면서기 송병옥 등도 있었다. 이 무렵, 또 칠보면 유생 이희섭(李喜燮)과 태인 일대에서 일제에 의해 검속된 시위 군중 80여 명은 대부분 광주지방법원 전주지청에 송치되어 6개월 내지 1년 반의 실형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러야 했다. 정읍검사국에 송치된 만세시위 주동 인물은 25명이었으며, 5월 15일 정읍재판소의 1심판결은 〈표1〉과 같다.

〈표1〉에서 알 수 있듯이 송연수는 주도자라 하여 2년의 징역형을 받았다. 만세시위의 주도 인물은 연령상 2~30대가 주류를 이루며, 그것도 30대는 구속된 인사 25명 가운데 3명에 불과하다. 계층별로 볼 때 소위 '지식인'으로 불리는 보통학교 교사(훈도), 학생 혹은 졸업생, 면서기와 같은 하급관리 그리고 노동자와 농민을 포함하는 민중들이 다수였다. 특히, 주도 인물들이 다소나마 신교육을 받은 인물들이

었다는 점과 3·1운동 당시 면사무소가 시위대들의 주된 공격대상 이었는데, 태인에서는 면서기가 만세시위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이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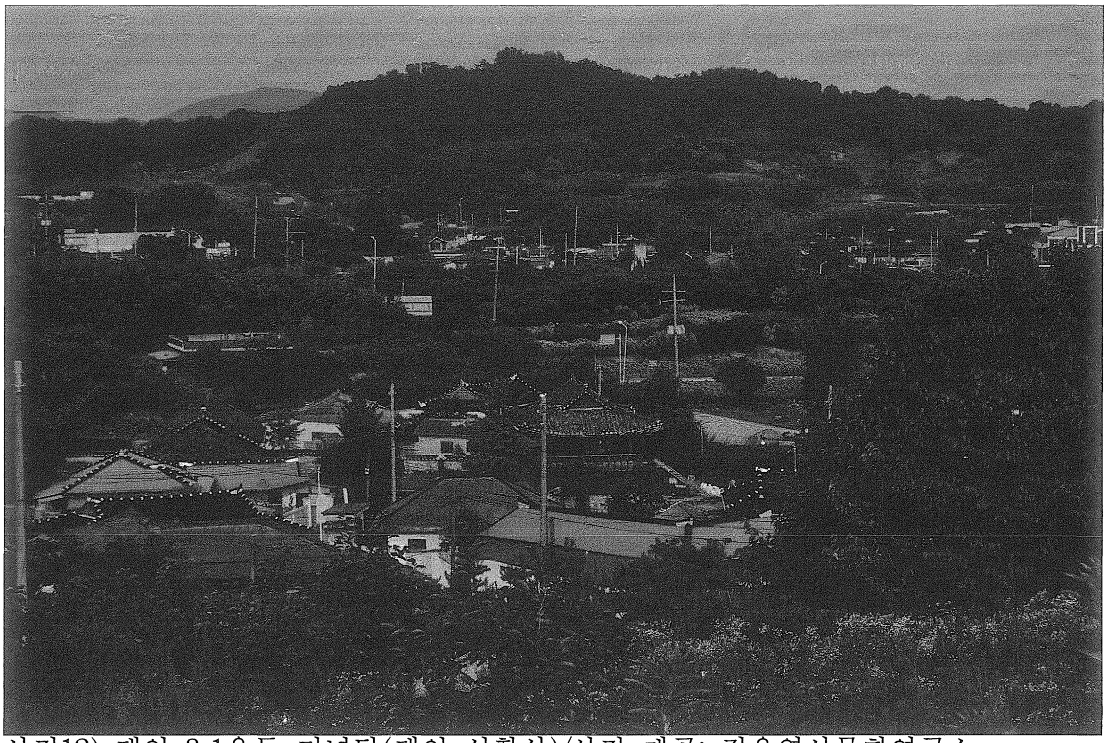


사진12) 태인 3·1운동 기념탑(태인 성황산)/사진 제공: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주도 인물 가운데 송한용은 10개월 복역 후 상해 임시정부와 연락을 유지하면서 군자금 7,000원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독립운동을 실시한 공적이 인정되어 그에게 대통령 애족장이 수여되었다. 김부곤은 1926년 동아일보 태인지국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나, 이후 사회운동에는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1920년대 정읍지역의 청년운동

근대적 교육기관의 확산으로 청년·학생층이 증가하고, 이들이 3·1운동과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운동의 영향을 받으면서 조직적인 청년·학생운동이 성장하기 시작하였다. 1919년 이후 각지에서 청년단체와 학생조직이 급속이 증가하였다. 청년단체의 경우, 초기에는 지방 유지나 명망가들에 의해 결성되어 주로 수양·계몽활동에 주력했으나 곧 사회주의의 영향을 받은 혁신청년들이 등장, 이들이 청년회를 장악하면서 청년회 운동의 주도권은 이들에게 넘어갔다.

이와 같이 1920년대 초 우후죽순처럼 결성된 전국의 수많은 청년단체들은 1923년을 기점으로 다수가 사회주의적인 청년 단체로 전환하였고, 1924년에는 '조선청년총동맹'으로 결집되었다. 하지만 1920년대 청년회의 활동은 청년대중의 현실적인 운동보다는 청년들의 의식화와 계몽 차원에 한정됨으로써 사상단체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였다.

당시 전라북도 지방에서도 청년운동은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표〉는 1919년부터 1929년까지 전라북도 지방에 조직된 청년단체의 현황을 군별로 정리한 것이다.

〈표〉 전라북도 지방 청년운동 단체 현황(1919~1929)

부군	군산	전주	진안	금산	무주	장수	임실	남원	순창	정읍	고창	부안	김제	옥구	익산	계
단체수	24	46	1	12	2	2	12	7	10	17	12	14	33	4	56	252

〈표〉에서 알 수 있듯이 익산이 56개 단체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전주, 김제, 군산, 정읍 순으로 되어 있어 이들 지역에서 청년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으로 간주된다. 반면에 무주와 장수, 진안은 도내에서 청년운동이 제일 미약했던 것으로 여겨진다.

이를 다시 결성된 연도별로 살펴보면, 1919년 당시 전라북도에는 전주청년구락부, 남원청년회, 고창청년회, 김제청년회 등이 조직되어 있었고, 1920년에는 전주, 완산, 고산, 금산 등지에 청년회가 조직되었다.

전라북도의 청년운동에 관한 연구는 일찍이 조찬석에 의해 그 운동단체의 개황과

활동이 일부 밝혀진 바 있다. 이 글에 의하면, 전라북도 15개 부·군 전역에서 모두 252개의 청년회가 조직되었으며, 가장 활발했던 곳은 전주와 익산, 군산이었으며 그 다음이 김제였다. 개체 단체별로는 금산청년회, 군산기독청년회, 김제청년회 등이 가장 다양한 활동을 전개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로 정읍 지역 청년운동에 주목한 연구는 송만오의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의 조직과 활동」이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20년대 초부터 1927년 사이 정읍에는 정읍청년회를 비롯한 태인청년회, 고부청년회, 산외청년회 등 모두 11개의 청년회가 있었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청년 단체의 조직과 청년회의 활동 추이까지 정리하여 지역사 연구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하지만 여기에는 천도교청년회와 같은 전국 단위의 종교청년단체가 빠져있을 뿐만 아니라 정읍청년회의 차경삼과 박홍규와 같은 친일 인사들의 행적이 누락되어 있다. 이와 같이 사실 관계에 있어 보다 명확한 규명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이들 청년회를 주도한 인물들의 계층과 성향이 일부를 제외하고 언급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정읍 지역 청년회의 실상을 온전하게 드러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필자는 일간지에 보도된 기사와 관련 자료를 중심으로 청년회의 활동과 여기에 간여하였던 주도 인물들의 계층과 성향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밝혀보고자 한다.

〈표〉 1920년대 정읍지역 청년회 현황

청년회명	설립시기	주요 인물
고부청년회	1920년 초	은희순(殷熙淳), 은치재(殷致宰), 은언기(殷彦基), 은희상(殷熙相), 은필수(殷必秀) 등
태인청년회	1920년 6월	시재옥(柴在鈺), 김진영(金鎭永), 송영근(宋榮根), 송직상(宋直相), 김대곤(金大坤), 정방모(鄭邦謨)
정읍청년회	1920년 7월	차경삼(車敬三), 박종규(朴種奎), 박기돈(朴基敦), 박치규(朴治奎), 홍회근(洪迴根), 박이용(朴二湧)
시산(詩山)청년회	1920년	김동주(金東柱), 유재익(劉載翊), 송창(宋滄)
천도교청년회 정읍지회	1922년?	김병리(金炳璃/회장), 회원 수 미상.
소성청년회	1923년	김경현(金京鉉), 유원철(柳元哲),

		한광호(韓光鎬), 박순상(朴諄相), 한대호(韓台鎬), 이상만(李相滿)
덕안(德安)청년회	1923년	확인되지 않음
호부(互扶)청년회	1925년	이희목(李喜穆), 김황(金煌) 이여안(李汝安)
오성(五成)청년회	1926년 이전	박행규(朴幸奎), 시중석(柴重錫), 조기찬(趙紀贊), 오인영(吳寅泳), 김동환(金東煥), 이기석(李祺錫)
입암청년회	1927년	유연기(柳然基), 변창호(邊昌鎬)
산외청년회	미상	은성천(殷成天), 송왕기(宋旺起)
신태인청년회	미상	

정읍에서 설립 시기가 가장 앞섰던 것은 1920년 초에 조직된 고부청년회였다. 1920년 8월 20일 제3회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고부청년회 임원 중 중요 인물을 살펴보면, 회장 은희순(殷熙淳), 부회장 은치재(殷致宰), 총무 은언기(殷彦基), 덕육부장 은희상(殷熙相), 체육부장 은필수(殷必秀) 등이었다. 이들은 모두 행주 은씨들로 전통적으로 고부의 향리 집안 출신 들이었다.

이로 보아 강점 이전까지는 지역 명망가 층을 중심으로 한 자치적 지역운영이 관철되고 있었으나, 강점 이후에는 주로 읍내에 거주하면서 실무행정 등에 종사한 향리층을 잇는 신흥유력자층이 사회운동의 중심세력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고부청년회는 지역의 행정을 좌우했던 행주 은씨들의 친목단체이자 동계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활동 내용을 전하는 일간지의 기사가 많지 않다. 다만, 이들의 사회활동 일부와 청년회 간 체육행사가 일부 보도되었다.

1920년 9월 13일 고부에서 호열자(虎列剌/콜레라)가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불과 3~4일 만에 7~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자, 고부청년회에서는 방역대와 구호반을 편성하고 경찰의 협조를 얻어 방역과 환자 치료에 전력하였다. 한편 일반에게는 백미와 식료품을 지급하고, 사망자에게는 장례 준비를 주선하는 등 구호 활동에 앞장섰다. 이듬해인 1921년 6월 12일에는 줄포 경신청년회 체육부 주최로 정구 시합이 있었다. 이와 같은 체육 활동은 대부분의 청년회에서 전개했던 주요 사업 중 하나였다.

정읍에서 고부청년회 다음으로 설립된 것이 태인청년회였다. 태인청년회는 1920년 6월 27일 태인공립보통학교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하고 100여 명의 회원이 모인 가운데, 송직상(宋直相)의 개회사와 취지 설명이 있은 후, 내빈 측에서 병송(竝松)보

통학교장의 축사가 있었다. 회장에 정방모(鄭邦謨), 부회장에 송직상, 총무에 김진수가 선임되었으며, 당일 의연금만 1,063원이 모아졌다. 이는 당시로서는 대단히 큰 액수였으며, 그만큼 청년회에 참여한 인사들의 경제력이 탄탄했음을 말해준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1920년 함경도 원산지역 노동자의 하루 임금이 조선인은 1원 30~40전이었으며, 일본인은 1원 60~70전이었다. 이것도 경기 침체로 임금이 점차 하락하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할 때 1,063원은 실로 거액이 아닐 수 없다.

1920년 8월 2일 임시총회에서는 '덕육의 필요'와 '지식은 인생의 생사와 같다.'라는 점이 강조되었으며, '사회의 사공이 되자.'는 열변도 있었다. 이날 조직 개편에 들어가 회장과 부회장, 총무, 의사부장, 지육부장 겸 편집부장, 덕육부장, 체육부장, 사교부장 등을 선임하였다. 이러한 총회의 내용과 조직구성으로 볼 때, 고부와 태인청년회는 지역의 유지들로 구성된 사회단체로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단체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다만, 태인청년회 제10회 정기총회에서 유학생 환영 강연 개최, 몰핀 환자 박멸을 위한 박멸대를 조직하여 실행위원까지 선정한 점, 1927년 2월 25일부터 부녀 야학을 개최한 점 등은 이전보다 진전된 활동이라 할 수 있다.

조직에서 주목할 만 한 점은 이미 송만오의 논문에 언급된 바와 같이 태인청년회에서 활동하던 자들 중 상당수가 태인 지방의 3·1운동에 관여한 자들과 혈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태인 지방의 3·1운동에 가담하여 징역형을 언도받은 송진상(宋鎭相), 송근상(宋根相), 송문상(宋文相) 그리고 김현곤(金賢坤), 김부곤(金富坤), 김달곤(金達坤)과 태인청년회의 송직상(宋直相), 송건상(宋建相), 송헌상(宋憲相) 그리고 김대곤(金大坤), 김정곤(金禎坤)은 서로 같은 집안 사람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이로보아, 정읍군의 사회 경제활동은 여전히 구읍치였던 태인과 고부가 중심이 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1914년 행정구역 개편으로 태인과 고부가 정읍에 편입되어 1개 면으로 전락했으나, 생활권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정읍청년회가 이들 지역보다 늦게 창립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정읍청년회는 이미 조직된 '청년구락부'를 1920년 7월 26일 청년회로 이름을 바꾼 것이었다. 조직으로 지체(知體) 2부를 두었고, 회장에 차경삼(車敬三), 부회장에 박흥규(朴興奎), 총무에 박종규(朴鍾奎)가 선임되었다.

이들의 사회활동 이력을 살펴보면, 회장인 차경삼은 본시 평북 출신으로 1917년 경성의학전문학교를 졸업하고 정읍으로 내려와 정읍의원을 설립하였다. 이후 정읍유치원장, 읍회의원, 군농회 의원, 산업조합 감사, 초성금융조합 평의원, 학무위원 및 학부형 회장, 소방조합 고문 등을 두루 역임하였다. 이어서 정읍전기주식회사의 감사를 지내기도 했으며, 1947년 12월에는 정읍야간중학원을 설립하고, 초대원장으로 취임하기도 하였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이 읍회의원과 군농회, 금융조합 등의 그의 이력이다. 이러한 차경삼의 이력은 그가 일제와 밀접하게 연결된 부일협력자였음을 말해준다.

1925년 이후, 일제는 조선을 수탈하기 위해 농촌에 3단체의 설립을 추진하였다. 그것이 바로 군농회와 산업조합, 금융조합이었다. 특히 금융조합은 식산은행의 보조기관으로 중농 이상의 부자, 양반들의 고리대 자금으로 이용되고 있었다. 이들은 조합에서 저리로 빌려온 돈을 고리로 빈민에게 다시 빌려주어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은 저리자금의 융자를 통해 토지를 매입하였다. 이는 대다수의 한국농민을 근대적인 금융시장에서 전적으로 배제시키면서, 지주의 고리대가 융성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었다. 당시 조선식산은행은 일본 금융시장에서 자금 공급을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조선총독부의 행정적인 지원 하에 한국의 금융계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였다.

차경삼이 이 같은 일제의 정책기관에 간여할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친일적인 행위가 있었기에 가능했을 것이다. 그가 역임했던 금융조합 평의원은 총회에서 조합원 가운데 선출되었으며, 금융조합의 제반사항에 대해 조합장의 자문역할을 수행하고 조합 업무를 보좌하였다. 운영의 실권은 물론 이사에게 집중되어 있었으나, 평의원들도 부분적으로 운영에 참여하였으며, 조합운영 전반에 관해서는 총독부와 지방청의 지시와 감독에 따라 시행해야만 하였다.

한편 부회장으로 선임된 박흥규는 중추원 참의를 지낸 정읍을 대표하는 부일협력자였다. 박흥규는 사계의 전문가들이 반민족행위처벌법에 근거하여 작성한 친일반민족 행위자 총 692명의 명단에 포함되어 있다. 일찍이 정읍향교 직월로 활동하였으며, 정읍전기주식회사 사장, 정읍면장, 조선박람평의원, 대례기념장, 동아일보 정읍지국 고문, 관선도평의회원을 역임하였으며, 한때는 유치원을 설립하여 원장으로 재임하였다. 또 초성금융조합장, 향교장의, 소작조정위원회 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특히 그가 대정천왕의 즉위를 기념한 대례기념장 전국 수여자 8명에 포함되었다는 사실은 그의 부일협력 정도를 가늠케 하고도 남는다.

이 같은 정황으로 볼 때, 정읍청년회 역시 출발은 고부, 태인청년회와 마찬가지로 지역유지 모임의 성격이 짙은 것이었다. 또한 차경삼과 박흥규의 정읍청년회 간부 활동과 그 이후의 이력으로 볼 때, 그들을 통해서 일제강점기 지역유력자들이 민족·사회운동에 참여하면서 한편으로는 일제에 저항하고자 했던 이른바 '저항과 협력'이 중층적으로 드러나게 됨을 우리 지역에서도 분명하게 확인하게 된다.

이런 가운데서도 한 가지 정읍청년회의 활동 가운데 두드러지는 것이 노동야학이다. 노동야학은 3·1운동 이후인 1920년대가 전성기이며, 1930년대까지 일제의 탄압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지속되었다. 노동야학은 1920년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된 공립보통학교에 대항하면서 설립이 증가하였다.

정읍은 지역 유지 청년들의 협조로 청년회관을 수리하고 1922년 8월 1일부터 야학을 실시하여 70여 명을 수용하였다. 당시 임원은 회장 김기동(金箕東), 부회장 박흥규(朴興奎), 총무 박석규(朴碩奎), 간사 김명석(金明錫), 김종태(金鍾泰), 김회진(金會珍), 서기 박장규(朴壯奎), 이형우(李炯雨), 평의원 차경삼(車敬三), 임대현(任大鉉), 박만규(朴萬奎), 김종선(金鍾善), 최중진(崔重珍), 이익겸(李益兼) 등이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인물들이 바로 김기동, 박석규, 차경삼, 김회진 그리고 최중진과 이익겸 등이다. 김기동은 박석규, 차경삼과 함께 정읍전기회사를 설립한 주역이었다. 박석규는 조선노동공제회 정읍지회장이었으며, 1928년부터 1932년까지 정읍면장으로 있었다. 면장 장기 근속자로 일제로부터 주임관 대우를 받기도 하였다. 1930년 민선 전북 도평의원이었다.

한편 최중진은 호남지방 최초의 목사였으며, 형평사 정읍분사의 고문으로 활동하였다. 이익겸은 3·1운동 당시 항일운동의 전력이 있는 인물로 최중진과 함께 신간회 정읍지회 창립 준비위원으로도 활동하였다. 김회진은 청년동맹 정읍지부 전형위원으로 활동하면서 노동야학을 운영하였다. 당시 야학을 열고 있었지만 지역 청년인사들의 무관심과 경제난으로 인해 운영상 많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제때에 취학하지 못한 무산 자녀들을 위해 김회진 단독으로 교육에 종사하고 있었다.

당시 노동야학은 대부분 무보수였으며, 교육과정은 조선어, 일어, 산술, 간단한 한문 정도의 수준이었기 때문에 정읍 노동야학도 이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수업 연한은 보통 1년 정도였다.

이 같은 구성 인물로 보아 정읍청년회는 이익겸과 같은 민족주의자, 차경삼, 박홍규, 박석규와 같은 다분히 친일적인 인물들이 혼재한 단체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 밖에 정읍청년회의 활동으로 동아일보와 조선일보 정읍지국 후원 아래 열린 남조선 축구대회, 청년회 주최 음악회가 열리기도 하였다.

1928년 5월 12일에는 정읍 관내 청년단체를 통합하기 위한 정읍청년동맹 창립대회가 태인 만화루에서 열렸다. 그러나 정읍청년동맹은 출발부터 순조롭지 못하였다. 그것은 청년동맹이 다른 지역의 경우처럼 사회주의 성향을 지닌 단체로 흐를 수 있다는 것과 함께 저들의 활동영역이 시국문제까지 개입할지도 모른다는 경찰의 우려 때문이었다. 이러한 가운데 1928년 7월 15일에는 조선청년운동과 맥락을 같이 하기 위해 정읍청년회를 해체하고 정읍청년동맹 정읍지부로 전환하였다.

지금까지 서술한 청년회는 지역 유지들로 구성된 민족 부르주아지 운동의 성격이 짙은 단체로 볼 수 있으나, 정읍청년동맹 결성에 가장 적극적인 태도를 보인 산외청년회는 상당히 좌경화된 조직이었다.

이 단체의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이는 인물이 은성천이다. 그는 1927년 3월 유지 장환기(張煥箕)와 함께 '신명회(新明會)'를 창립하고, 1928년 동아일보 태인 지국 기자를 역임하였다. 동년 5월에는 청총 정읍동맹 창립 준비위원으로 활동하였다. 1928년에는 신태인 형평분사 제6회 정기 대회에 청년동맹 대표로 참석하여 축사를 하였다. 1929년 3월 23일에는 경찰의 가택 수색 결과 불온 문서 소지 혐의로 정읍 경찰서에 구속되었으며, 4월에는 산외면 지역 사상 단체인 신명회를 해소하고 고용주(高庸柱), 정헌교(鄭憲喬), 송수락(宋洙格) 등과 함께 '산외농민조합'을 결성하였다. 이들은 창립과 동시에 농민 대중의 정치적·경제적·민족적 이익의 획득, 의식적 교양과 훈련, 공고한 조직의 완성 등의 강령을 채택했다. 그 해 5월에는 '전북공산당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검거되었으며, 1931년 11월 초에는 이평, 산외, 감곡, 정토, 용북 등 5개 면에서 모종의 비밀 결사를 조직했다는 혐의로 청년 30여 명과 함께 다시 검거된 바 있다. 이로보아 산외청년회는 정읍지역 내에

서는 보기 드문 소위 사회주의 노선을 표방한 청년단체였던 것으로 이해된다.

이밖에도 호남선 철도의 개통으로 발달된 신태인에서도 청년회가 조직되었다. 창립 시기가 분명치 않으나, 태인청년회의 설립 멤버였던 송직상과 김진영이 청년구락부를 조직하기 위해 발기하고 있었던 점으로 보아 그러하다.

지주들을 상대로 한 소작쟁의와 농민운동

우리나라에서 전국적 규모의 근대 노동단체로 조직된 것이 1920년 4월에 창립된 조선노동공제회다. 신용하가 한국 사회주의 운동이 조선노동공제회로부터 비롯되었다고 주장할 정도로 조선노동공제회는 한국 사회주의 운동에서 중요한 단체이다. 공제회가 결성되기 이전 조선의 노동문제를 연구하기 위한 조선노동연구회가 조직되었다. 중심 인물은 박중화(朴中華), 박이규(朴耳圭), 오상근(吳祥根) 등이었는데 이들은 비노동자 계급 출신으로 이미 어느 정도 사회주의 이론을 수용한 진보적 지식인들이었다.

이 연구회는 노동자의 참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식인들이 노동문제나 사회주의 사상에 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한 모임이었기 때문에 본격적인 노동단체라고 보기는 어렵다. 이 연구회는 1920년 2월 자진 해산하고 이 연구회의 중심 인물들에 의해 1920년 4월 13일 한국 최초의 근대적 노동단체인 조선노동공제회가 조직된 것이다. 조선노동공제회 이전에도 이미 1906년경 부산·목포·인천 등 개항장과 대도시에 단초적인 조직이 만들어졌으나, 이는 모두 노동자의 상호부조 단체에 불과하여 노동단체로 보기에는 미흡한 점이 너무 많았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우리나라 최초의 노동자 잡지인 「공제」와 「노동공제회보」를 발행하였다. 「공제」는 최초의 노동단체 기관지로서 사회주의 사상의 선전을 기치로 내걸었으나 실제로는 사회주의 내의 다른 어떤 이론보다 아나키즘 이론을 많이 소개함으로서 결과적으로 1920년대 국내 사회주의 운동에 일정하게 아나키즘적 영향을 끼쳤음을 보여준다.

또 「공제」는 노동자들에게 노동의 가치, 노동의 신성성, 노동의 존엄성, 노동문제의 이론, 세계의 노동운동 등을 가르쳐주었고, 민족주의와 사회주의 사상까지 가르쳐 주었다. 노동공제회의 이러한 계몽과 교육운동은 노동자들의 자부심과 긍지,

의식, 지식, 품성을 높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조선노동공제회는 창립 후 전국에 46개 지회를 설립하고 약 6만 2천여 명의 노동자를 회원으로 확보하였다. 이 가운데, 조선노동공제회 정읍지회는 1920년 8월 27일 백양사(白羊社) 포교당에서 발회식을 갖고 창립되었다. 당시 20여개의 지회 가운데, 평양 500명, 대구 540명, 예산 200명, 정읍 1,500명, 광주 300명, 청진 300명, 인천 800명, 안악 138명, 안동 1,400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었음을 감안할 때, 정읍은 창립 시기와 회원 보유에서 상당히 앞서가던 지역이었다. 이 날 발회식에서는 서울 본회 회장 박중화(朴重華)의 열렬한 축사와 본회 총간사 박이규(朴珥圭)의 취지 설명이 있은 다음, 임원을 선출하였다.

임원 가운데, 부회장 박석규와 의사장 박흥규는 정읍청년회 총무와 부회장이었으며, 총간사 최중진은 평의원으로 활동한 인물이었다. 이러한 인적구성을 바탕으로 정읍지회는 '소작인 운동'과 '소비조합 운동'을 전개하였다. 이는 조선노동공제회 지회 중에서 가장 먼저 소작인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노동단체로는 1926년 2월 27일 '정읍기공동맹'이 창립되었으며, 3월 10일에는 '삼각노동동맹'이 조직되었다. 그러나 정읍지역에 노동조합연합체가 조직되지 않은 점으로 보아 노동운동이 활발하게 전개된 것 같지는 않다. 1920년대 노동운동은 마르크스 사상의 유입에 따른 공산주의 운동에 영향을 받았으며, 사회운동으로서 민족해방운동과 연계되어 있었다. 그러나 정읍은 노농운동 관련 사회주의 사상단체가 거의 없었기 때문에 노동운동이 부진할 수밖에 없었다.

농민운동은 노동운동에 비해 비교적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정읍은 일본인 지주들이 많아 총독부와 일제 경찰의 비호 속에 농민에 대한 삼엄한 경계와 탄압이 가해지고 있었다. 실제로 정읍에서 전개된 농민운동 대부분이 한국인 지주 관할 농장에서 발생했다고 하는 것이 이를 확인시켜주고 있다. 1925년 4월 10일 지주 민대식(閔大植)이 정읍군 태인면 소작인들의 소작권을 박탈하자 김학규를 비롯한 소작인들이 이 사건을 태인노농회에 진정하였다. 이에 태인노농회는 경성노동총연맹과 제휴하여 지주에 대한 소작권 이동 반대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과정에서 사음(舍音/마름)이 중상을 입었으며, 소작인 일부는 경성에 있는 지주와 직접 교섭하였다.

한편, 정읍경찰서는 종로경찰서를 통해 사상단체의 교섭에 응하지 않도록 지주에

게 경고하였다. 한편으로는 신·구소작인 및 사음에 대해서는 상호 양보하고 원만한 해결을 촉구하였다. 이에 구소작인은 신소작인으로부터 소작지 일부를 반환받았으며 사음에게 사과하는 것으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1925년 10월 1일 용북면 화호리 화호노동친목회의 김복수(金福洙), 구성일(具成一) 등이 부안군 백산면 원천리의 소작동우회와 제휴하여 직접 정읍 지주 6인(김금동 외 5인)에 대해 소작료 인하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때 정읍경찰서는 소작인 2명을 검거하고 지주에게는 경고와 협조를 요청하였다.

이와 같이 정읍은 1920년대 중반까지 한국인 지주를 상대로 소작권 이동과 소작료 인하운동을 전개하였으나, 1920년대 후반부터는 일인농장을 배경으로 격렬한 소작쟁의를 전개하는 것으로 그 양상이 바뀐다. 1927년 4월 신태인 화호의 동양척식주식회사의 일본인 이민촌에서 소작쟁의가 있었고, 역시 화호에 있었던 구마모토 농장에서도 1930년대에 소작쟁의가 4차례나 발생하였다. 당시 구마모토 농장의 소유지는 5개군(정읍, 김제, 옥구, 익산, 부안군) 26개면에 걸쳐 있었다. 소유지 대부분이 1930년경부터 수리조합 사업에 수반한 구획정리를 통해 고생산력지대를 형성하고 있었다. 그가 소유한 개정본장, 지경지장, 대야지장, 화호지장 등 1본장 3지장은 군산항으로의 철도교통의 요지에 소재하고, 일본으로 향하는 쌀 이출의 거점이기도 했다.

구마모토는 토지소유 전국 7위에 전라북도에서는 동척 다음으로 많은 토지를 가지고 있었다. 구마모토 농장은 일제강점기 농업 경영의 선진성과 수탈성이 가장 강했다. 주변 일본인 농장 중에서 소작료가 가장 높았다. 1935년 일본인 신문 [군산일보]조차 '다작하여 다취하는 주의'이지만 '다취가 심하다'고 지적할 정도였으며, 1937년 전라북도의 현직 일본인 소작관조차 '지주 본위의 시책'이라고 비난할 만큼 수탈적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제 관변 측 자료에는 "어려움에 부딪혀도 굴하지 않을 재계의 용사, 견인불발, 학식, 체험, 담력의 삼박자를 두루 갖춘 사람이다."라고 평가했다.

특히 증산 목표치를 자의적으로 정한 후 농사도 짓기 전에 소작계약을 체결하고 미리 소작료부터 올리는 방식을 취하였다. 단보 당 수확고가 이미 4~4.5석에 달하여 추가 증산이 극히 어려운 상황에서도 다시 15~20%를 증산할 계획을 세우고 그에 맞추어 소작료를 올리는 것은 애초부터 실현 불가능한 것이었다.

소작관은 1934년 소작계약 갱신 때 화호지장에서 25% 증수 목표를 세우고 소작료도 올렸으나 그에 미달하여 그해 가을 소작료 인하 및 소작료 불납동맹을 결성하며 대규모 투쟁을 벌였다. 화호지장 쟁의는 1937년까지 해결되지 않았다. 구마모토 농장의 사업장이 많았음에도 유독 화호지장에서 대규모 소작쟁의가 장기간 지속된 이유는 신태인 지역의 경우 일찍부터 각종 사상단체와 연결된 농민운동, 노동운동 단체가 활동해 왔기 때문이다. 예컨대 신태인에는 1923년과 1924년에 조선소작인상조회 3군지회와 신태인노동조합이 활동하였고, 1925년에는 부흥단, 1927년에는 구매조합이 각각 창립되었다. 1927년에는 조선공산당과 연계를 가진 신태인청년회와 화호농맹위원회가 활동 중이었고 그들의 주도로 신간회 화호지회가 설치되었다. 특히 1927년 10월에 신간회 화호지회 조사연구부장이 된 김영선(金永先)은 화호지장 소작쟁의를 주도한 인물의 하나였다.

1933년에는 개정본장 구역인 옥구군 옥산면의 소작인 200명이 소작료 인상에 항의하여 쟁의를 일으켰다. 소작인에 대한 대우는 소나 말보다도 못해서 농장 지휘에 조금이라도 불응하거나 성적이 다소 불량하면 구타와 욕설이 다반사였다.

1934년 11월 30일 구마모토는 20~30%의 소작료를 인상하였다. 이에 300여 명의 소작인들이 납입고지서를 농장 측에 반송하고, 소작료 인하를 요구하며 인상 부분 불납을 결의하였다. 당시 소작인들의 요구는 대부분 경제적 생활투쟁에 있었으며, 반드시 식민지 권력에 반대하는 항일농민운동으로 발전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지주측은 그들의 입장을 시종일관 고수함으로써 결국 소작료 인상을 관철시켰다.

한편, 산외면에서는 1928년 4월 합법농조가 조직되었다. 산외면 지역의 활동가들이 사상단체인 '신명회'를 해체하고 산외농조를 결성한 것이다. 중심 인물은 고용주(高庸柱)·정헌교(鄭憲喬/全農)·은성천(殷成天)·송수격(宋洙格) 등이었다. 이들은 창립과 동시에 "농민대중의 정치적·경제적·민족적 이익의 획득", "의식적 교양 및 훈련", "공고한 조직의 완성" 등의 강령을 채택하고, 농총 가입을 정식으로 결의하였다. 산외농조는 1929년 3월 농조사무실 및 간부들의 가택 수색 사건 등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활동을 계속하였다.

정읍군 용북면 신태인리에도 소작쟁의 과정에서 농조가 조직되어 활발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그러나 1930년 9월 빈영환(賓永煥) 등 중심 인물이 검거되면서 유야무야되었다.

이평면에서도 신태인 농조 사건과 거의 동일한 시기에 이른바 '이평농조사건'으로 김용원(金容轅) 등이 검거되었으나 모두 석방되었다. 이평농조는 1926년 3월경 창립된 '이평노친회'의 후계조직이었다. 이평노친회는 1926년 10월경 '이평농민회'로 명칭을 변경하였다가, 이후 또다시 농조로 명칭을 변경하였다. 농조의 중심 인물은 김용원·이재구(李在九)·윤동진(尹東振) 등이었다. 조선일보 신태인지국장이었던 김용원은 이평농조의 중심 인물임과 동시에 이른바 정읍군 내 '적색농민조합사건'의 중심인물이기도 하였다.

이처럼 정읍지역에는 3개 지역에서 농총 산하의 농조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러나 군단위의 통일적인 농민조합을 건설하고자 하는 시도는 없었다. 비록, 군단위의 통일된 조직을 건설하지는 못했으나 정읍지역의 농조운동은 전북의 여타 군에 비해 활발한 편이었다.

1931년 11월 초 정읍·이평·산외·감곡·정토·용북 지역의 활동가 30여 명은 '독서회 및 적색농민조합 조직협의'로 대거 검거되었으며, 이로써 정읍지역 합법 농조운동은 궤멸된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건으로 1930년에 발생된 '전북농민폭동'사건이 있다. 정읍군 고부면과 영원면, 부안군 주산면과 백산면을 경계로 한 배수로 개설 공사에 영세농과 고농(雇農)이 동원되었다. 공사 길이는 약 4킬로미터였고, 몇 년에 걸쳐 농한기에만 실시되었다. 이 때 모두가 공사 담당자인 수리조합과 이를 현장에서 감독하는 십장들의 비인간적인 횡포에 불만이 가득 차 있었다. 그러던 차에 인부 하나가 현장 십장에게 부당하게 폭행당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 사건은 인부들이 현장 사무소를 방화하는 것으로 끝이 났지만, 규모가 워낙 커 지방 경찰로는 진압을 못하고 신태인에서 일본 헌병대가 오고 나서야 진압되었다.

아나키스트 백정기, 인간의 참된 해방을 위해 투쟁하다

아나키스트란 원래 '정부가 없는 혼돈 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다. 일제강점기 독립운동의 주류는 '민족주의자'를 포함한 '아나키스트'와 '사회주의자'들이었다. 백정기 의사는 이봉창·윤봉길과 함께 '3의사'로 불리는 독립운동가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잘못된 인식으로 온당한 평가를 받지 못하였다. 이는 아나키즘과 공산주의를 같은 개념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사진13) 구파 백정기의사 기념관(영원면)

아나키즘은 정부가 없는 혼돈상태를 의미하는 말이 아니었다

아나키즘은 그리스어 '아나르키아'에서 유래된 말이다. 호메로스와 헤르도토스가 '군대에 우두머리가 없는 상태'라는 뜻으로 사용했다. 1840년 프랑스인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은 『소유란 무엇인가』라는 저서에서 처음으로 이 말을 "개인들이 일체의 권위에서 해방된 상태"를 가리키는 긍정적인 의미로 사용했다. 그는 개인들 간의 계약을 통해 지배자가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나중에 그는 공산주의자들이 전제적인 해결책을 거부함으로써 칼 마르크스의 적의를 샀다. 프루동의 뒤를 이어 나타난 러시아의 바쿠닌은 더 진화한 사회형태인 아나키즘 사회로 이행하기 위

해서는 폭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아나키스트들은 한동안 각국의 지배자들을 겨냥한 테러활동을 벌였다.

아나키즘이라는 용어가 '무정부주의'라는 일반명사로 자리 잡게 된 것은 1902년 일본 도쿄대학생 게무리야마 센이치로(煙山專太郎)가『근대무정부주의』를 발간하면서부터였다. 이후에는 아예 정부가 없는 혼돈상태를 뜻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 그러나 원래는 우두머리, 강제권, 전제 따위를 배격한다는 뜻이다. 아나키즘은 말 그대로 그리스어의 '없다(an)'와 '지배자(arche)'라는 뜻의 합성어로 '지배자가 없다'는 뜻이다. 그 어의에 가깝게 우리말로 번역한다면 '무강권주의' 또는 '자유연합주의'가 될 것이다. 즉 어느 누구도 억압하지 않으며 누구에게도 억압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나키스트, 공산당에 의한 일당 독재 체제를 반대하다

이른바 '무정부주의'는 자본주의 사회 타도와 사유재산 제도 철폐, 무계급 착취 사회건설을 지향하는 점에서 공산주의와 비슷하지만, 그 주요 목표를 자유에 대한 관심과 통치기구의 폐지를 촉진하는 데 둠으로써 독재를 용인하는 공산주의와는 큰 차이가 있다. 부연하면 아나키스트와 공산주의자들의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당을 바라보는 시각이다. 공산주의에 있어 당은 알파요 오메가다. 공산주의에 있어 당은 목숨보다 소중한 것이며 당명 또한 목숨을 걸고 수행해야 하는 지상명제이다. 그러나 아나키스트들은 당에 의한 '지도적 역할'을 부인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아나키스트는 모든 독재를 거부하면서 인간의 참된 해방을 지향한다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를 반대하는 것에는 인식을 같이 하지만 권위주의에 대한 태도는 극과 극을 달릴 만큼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다. 이들을 '자유와 해방의 전사'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영주정사'와 '창흥의숙'에서 호남의 명문가 자제들을 만나다

백의사는 1896년 1월 19일 전북 부안군 동진면 하장리(현재 부안읍 신운리)에서 장남으로 출생하였다. 어려서 부친을 여의고 일곱 살 때 영원면 은선리로 이사했다. 빈농의 아들로 태어나 편모슬하에서 고생을 하며 자랐으나 남달리 머리가 명석하고 똑똑한 소년으로 주위의 촉망을 한 몸에 받아왔다.

13세 살 되던 해에 명문과 부호로서 이 고을 일대에 이름난 '창녕조씨' 문중의 규수(조팔락)와 결혼하였다. 그 무렵 부호인 처가 쪽에서 빈한한 가세인 의사를 위해 5백석이라는 재산을 주었으나 의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 같은 당돌하고도 늠름한 기품은 주위 사람들로 하여금 장차 큰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였다.



사진14) 영주정사(흑암동)/사진 제공: 정읍역사문화연구소

1910년(15세) 합방 직후 영주정사(瀛州精舍/소성면 흑암리/학감이 창평고씨 고인주로 가사문학가로 유명한 소고당 여사의 부친인 고희석의 친척)에서 한문을 공부했다. 이 때 간재(艮齋) 전우(田愚)의 문하에서 공부하면서 당시 호남의 명문가 자제들과 함께 공부했는데 백관수(白寬洙/22세), 김성수(金性洙/20세) 등이 바로 그들이다.



사진15) 백정기(1896~1934)

이후 창평의 '창흥의숙(창평초등학교 전신)'에서 송진우(宋鎭禹), 김병로(金炳魯/초대 대법원장), 양태승(梁泰承/고창고보 교장, 무등양말 창업자) 등과 함께 공부했다. 이곳에서 한문과 국사, 영어와 일어, 산술 등의 교과를 배웠다. 이 교육기관의 설립자는 호남 근대교육의 창시자로 불리는 춘강(春江) 고정주(高鼎主)였다. 춘강은 임란 당시 의병장이었던 고경명의 12대손이다. 고정주는 창평 제일의 부자였다. 1902년 자신의 딸과 김성수(보성전문학교/고려대학교/경성방직/동아일보 창간)를 결혼시켜 사위로 맞았다. 사위 김성수와 아들 고광준에게 영어를 가르치기 위해 호남 최초로 영학숙을 설립한 것이다. 창흥의숙과 영학숙은 해방 후 전남지역 인재 양성의 탯자리가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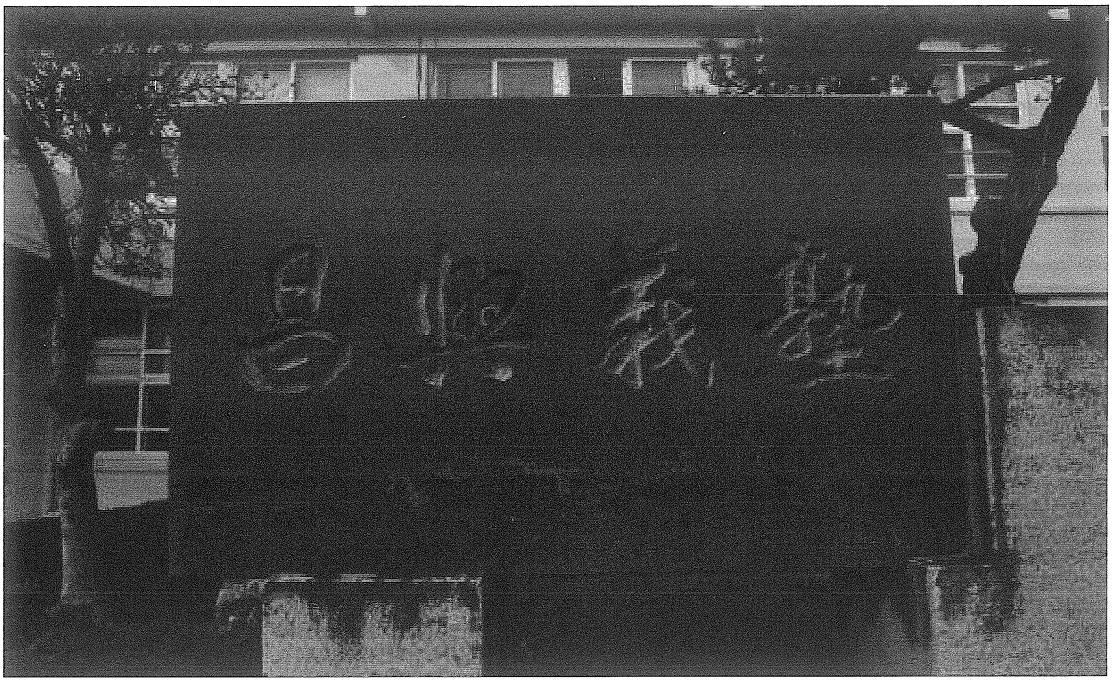


사진16) 창흥의숙(지금의 전남 창평초등학교)/사진 제공: 정읍역사문화연구소

국내에서 자금을 마련하고, 국외에서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1914년 말, 일본 순사가 주변 마을에 구두를 신은 채 농가 안방으로 들어가 씨앗과 물레를 들고 나와 부셔버리는 것을 목격한 그는 끓어오르는 분노가 사그라질 때까지 왜경을 두들겨 팼다. 이 사건으로 인해 고향을 등 질 수밖에 없어 19세 때 서울로 올라간 것으로 보인다.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나자 독립선언문과 전단을 가지고 고향에 내려가 항일운동을 이끌었다. 그 후 동지들과 경인(京仁)간의 일본 군사시설 파괴를 공작하다가 경찰에 체포되었으나 본적지와 행적을 속여 나올 수 있었다.

그는 큰 뜻을 펴기 위해 활동비를 염출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었다. 백의사의 독립운동 동지로 전주에 김동수(金東洙/완주군 우전면)라는 사람이 있었다. 백의사는 김동수를 데리고 백산(부안)에서 농장을 경영하고 있는 와카야마(若山)라는 일본 사람을 찾아갔다. 이 무렵 일본인들이 전국 각처의 평야부에서 농민들로부터 헐값으로 농토를 사들여 농장을 경영하며 빈한한 조선 농민을 착취하고 있었던 것이다. 백의사는 그 용모가 헌헌한 기상일 뿐 아니라 평소에 익힌 일본어가 능통했다. 함께 동행한 김동수를 등기소 직원으로 가장시켜 서류상 가공의 토지를 만들어 매매하는데 성공했다. 그리하여 많은 돈을 토지대금으로 받아냈다. 이 같은 행위는 큰 뜻을 펴

기 위한 임시방편이었다는 사실을 이해해야 한다.

백의사는 1922년 북경으로 망명했다가 1923년 여름 본국을 경유하여 동경으로 건너갔다. 조천수력발전소 공사장 노동자로 변장 은신하여 일왕 암살을 계획하다가 불의의 동경대진재(關東大地震)로 인하여 동지를 잃고 부득이 피난민 대열에 섞여 다시 본국을 경유하여 1924년 4월에 귀환하였다.

그가 귀국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일제가 동경대진재를 계기로 사회주의를 박멸시키고자 하였기 때문이다. 일제는 소위 「주의자」와 「불령선인」이 불온한 계획을 음모하고 있다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를 퍼뜨려 조선인을 대량 학살하는 참극을 연출하였다. 그가 귀국할 때 『세계사상대전집』14권을 가지고 온 것으로 보아 이때 아나키스트로 변신한 것으로 보인다. 그 해 상하이에서 우당 이회영, 화암 정현섭, 우근 유자명, 회관 이을규, 우관 이정규(상해 임정과 국내를 연결하는 교통망 구축/1928년 재중국조선무정부주의자연맹 기관지 『탈환』집필/1946년 국민문화연구소 창립/1963년 성균관대학 총장) 등과 함께 재중국 무정부주의자연맹(이하 '무련')을 결성하는데 참가하여, 조선 대표로 출석하였다. 그리고 기관지인 『정의공보』를 비밀리에 발행하였다. 순간(旬刊)으로 발행되던 공보는 자금사정으로 9호로 끝났다. 무련이 기관지를 발간한 것은 우당과 그의 동지들이 아나키스트였음을 세상에 드러낸 계기가 되었다. 하지만, 그 잡지는 현재 전해지지 않고 있다.

1927년 상해전차공사에 취업하여 생계를 유지하던 시절, 북경에서 폐결핵을 앓던 의열단원을 간호하게 되면서 백의사도 폐결핵에 전염되었다. 이로 인해 사경을 헤매었으나 유자명 등 여러 아나키스트 동지들로부터 후원을 받아 1929년(34세)부터 1930년까지 약 1년간 결핵환자 요양소인 국제적 규모의 결핵전문병원에서 요양생활을 하여 완치되었다. 폐병은 당시 불치병으로 간주되던 시기였다. 한번은 김두봉이라는 동지의 집에 가는 도중 어린아이들이 병에 걸려 먹지도 못하고 누워 죽어가는 것을 보게 되었다. 그는 속옷과 겉옷을 몽땅 벗어주고 자신은 두루마기만 걸친 채 시장에 있는 전당포를 돌아다니다가 겨우 돈 몇 푼을 얻어 빵과 약을 사들고 김두봉의 집으로 달려간 일도 있었다.

1932년 4월 29일, 이봉창 의거에 이어 일왕의 천장절과 상해사변 전승축하식이 열린 훙커우 공원에서 윤봉길 의거가 있었다. 의거 당일 백의사도 동일한 시도를 준비했었으나 입장권을 구하지 못해 실패하였다. 앞의 두 의거는 김구가 직접 계획하

고 지휘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김구도 이 의거를 동의하고 승인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17) 윤봉길 의사 의거 현장(상해 홍구공원)/사진 제공: 정읍역사문화연구소

사전 정보누설로 '육삼정 의거' 실패하다

백의사는 1932년 상하이에서 '자유혁명자연맹'을 조직한 다음 '흑색공포단(BTP/Black Terrorist Party)'으로 이름을 바꾸고, 조직을 강화하여 대일투쟁을 전개하였다. 흑색공포단은 이회영과 정화암이 지휘하고 왕아초가 재정과 무기공급을 맡았다. 하지만, 아리요시 공사 암살음모계획 직전까지 그 결사체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았다.

1933년 초 고급요정 육삼정에서 일본 정계와 군사계의 거물들과 중국 국민당 고관들이 회합을 갖는다는 중요한 정보를 입수했다. 참석자 중에는 일본육군대장 아라키 사다오(荒木貞夫)와 일본공사 아리요시(有吉明)도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아라키는 일본 군부를 대표하는 육군대신으로 일본 총리대신보다 더 실권이 있는

인물이었고 아리요시 공사는 무수히 많은 독립운동가를 체포한 장본인이었다.

1933년 3월 백의사는 이강훈·원심창·유기문·이용준·진수방·전화민 등과 규합하여 상해해방연맹을 결성하였다. 같은 해 3월 상하이 홍커우[虹口]에서 정현섭, 원심창, 이강훈 등의 아나키스트 동지들과 중국 주재 일본공사 아리요시 아키라를 암살하려고 모의하다가 육삼정(六三亭)에서 체포되었다. 아리요시가 획책한 음모는 일본의 영토 확장에 대한 중국인들의 거센 반발을 무마하고 중국 정부의 반만주국, 항일자세를 회유하는 데 목적이 있었다. 더불어 항일군의 저항을 중지시키며 한국독립운동을 탄압하기 위해 장개석 쪽 진영의 국민당 부패분자들에게 회유자금을 제공하고자 한 것이다. 이를 흑색공포단의 동지들이 중지시키고자 한 것이다.

거사계획이 결정되자 백정기가 먼저 솔선하여 실행자가 될 것을 자청하자 단원 전원이 자원하는 바람에 정화암의 제안에 따라 추첨을 하고 백정기가 실행자로 선출되었다. 흑색공포단원 8명이 제비뽑기에서 '유(有)' 자가 적힌 종이를 백정기가 뽑은 것이다. 그는 자신을 도울 사람으로 이강훈(李康勳)을 지명했다. 구체적인 계획은 1933년 3월 17일 아리요시의 연회장소인 상해 홍구 소재 요리점 6·3정으로 정하고 연회가 끝나고 공사가 나올 시각까지 대기 장소로 육삼정에서 200m 떨어진 송강춘(松江春)으로 정했다. 거사에 사용될 폭탄과 권총, 수류탄 등은 화암(華岩) 정현섭(鄭賢燮)이 건네주고 자금을 조달했다.

하지만, 일본총영사 보고문에 나와 있듯이 경찰의 세밀한 검거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었다는 것은 어느 시점부터 백정기 의사의 계획을 일제가 자세하게 파악하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보고문에는 계획의 주모자인 백의사가 누설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사전에 누군가에게 의해 누설된 것으로 보인다. 정화암은 회고록에서 중국군벌과 아리요시의 연회장소와 날짜를 알려준 자칭 아나키스트 일본인 '오키'를 범인으로 지목했다.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진 3대 의거, 육삼정 의거

백의사는 11월 15일 치안유지법 위반·폭발물취체법 위반·살인예비·기물파손 등의 혐의로 일본 나사사키 지방재판소에서 공판을 받았다. 그는 재판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기가 주도했다고 주장했다. 백정기 의사와 원심창(元心昌)은 "앞으로도 오직 실제운동을 계속할 뜻을 표명하고 있어 행동이 진실로 위험함으로 단연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는 명분으로 무기징역을, 이강훈은 징역 15년 형을 언도받았다. 백

의사는 이시하야 감옥에서 복역하던 중 39세를 일기로 옥사하였다. 복역했던 형무소는 붉은 벽돌의 방사형 건물로 1945년 원폭투하에서도 파괴되지 않고 지금도 남아 있다.

1946년 7월 6일 이봉창·윤봉길·백정기 등 3의사에 대한국민장이 해방 후 최초(당시는 미군정 시대이기 때문에 기록이 없고 행정안전부 기록에는 국민장 1호로 백범 김구의 국민장으로 기록되어 있음)로 거행되었다. 1963년에 대한민국 건국공로훈장 독립장이 추서되었다. 한편, 15년형을 선고받은 이강훈은 12년 반을 복역한 후 일제가 패망하자 석방되었다. 그 후 박열(朴烈)과 함께 일본에서 거류민단 활동을 하다가 귀국해서 광복회 회장을 역임하기도 했다. 무기형을 선고받은 원심창도 광복 후에야 석방될 수 있었다. 그도 광복 후 박열, 이강훈과 함께 거류민단에서 통일운동을 전개하다 1971년 7월, 6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 육삼정 의거는 의열단의 황푸탄 의거(1923), 윤봉길 의사의 의거(1932)와 더불어 중국 상하이에서 벌어진 '3대 의거'로 꼽힌다.

다음은 예심이 끝나고 나가사키 지방재판소로 압송되는 선상 2등실에서 백의사가 동지인 이강훈에게 남긴 말이다.

> "나는 얼마 살지 못할 것 같다. 동지는 몸이 건강하니 자중자애하라. 출옥하거나 만일 독립이 안됐으면 나를 조국 땅에 묻지 말고 독립이 됐으면 나의 유해를 조국 땅에 묻어 주되 무덤 위에 꽃 한 송이 만 꽂아 주기 바란다."

아래는 독립운동가 이강훈이 그의 자서전(『이강훈 자서전(李康勳 自敍傳)』)에 남긴 백의사의 대한 인물평이다.

> "백정기 의사는 나의 졸문으로 표현할 수 없는 청렴, 결백, 의리, 강직, 신뢰, 의용 등 모든 미덕을 갖춘 자유혁명가의 전형적 인물이었다. 그는 사지로 나갈 때는 항상 앞장서기를 원하였으며 동지를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씨는 최고의 휴머니스트라고 표현해도 지나친 평이 아니다. 어느 의미에서는 성인에 가까운 점도 없지 않았다."

6·10만세운동의 주역, 향산(香山) 이동환(李東煥/1901~1982)

6·10만세운동을 주도한 학생 조직은 두 개로 하나는 '사직동 계열'이며 하나는 '통동 계열'이다. 전자의 주동 학생은 중앙고보 5학년 이선호(李先鎬/경북 안동)·중앙고보 4학년 유면희(柳冕熙/경북 안동)·중앙기독교 청년회관 3학년 박두종(朴斗鍾/함남 홍원)·연희전문 문과 2학년 박하균(朴河均/함남 홍원)·이병립(李炳立/강원 통천)경성제국대학 예과 1학년 이천진(李天鎭/함남 북청) 등 6명이었다. 후자의 주동 학생은 중앙고등보통학교(현 중앙고) 5학년 이동환(李東煥/정읍 출신)·박용규(朴龍圭/경북 달성)와 중동학교 특과 3학년 김재문(金載文/임실)·황정환(黃廷煥/익산)·동과 2학년 곽대형(郭戴炯/김제) 등 5명으로 주동 학생은 모두 11명이었다. 통동계열의 주동학생 5명 가운데 4명이 전북 출신으로 전북인의 남다른 항일의지를 보여준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이동환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동환은 우리 고장 산외면 출신(평사리 26번지) 인물이기도 하지만, 6·10만세운동의 체험을 기록으로 남긴 필자이기도 하기 때문이다(이동환,「6·10만세 체험록」(영인본), 『전라문화연구』제6집 권말부록 참조).

신학문을 통해 민족의식이 형성되다

이동환은 1901년 1월 9일 전라북도 태인군 산외이변면 척곡(尺谷/1914년 산외면 평사리 척곡으로 개편됨)에서 이기순(李起舜)의 4남 중 장남으로 태어났다. 향산은 그의 자호이며, 자는 도상(道常)이다. 향산은 중국의 혁명가인 손문(孫文)의 고향으로 어릴 적부터 손문을 흠모하여 이를 자호로 삼은 것이다. 그의 집안은 '전주 이씨'로 그의 선조들이 척곡에서 300년 동안 세거하였기 때문에 '척곡 이씨'로 널리 알려져 있다. 그러나 척곡마을은 6·25전쟁 중에 폐허가 되어 없어져버렸고 척곡 이씨들은 그 후 각지로 흩어져 지금은 평사리에 겨우 몇 가호가 남아 있을 뿐이다.

척곡은 궁벽한 산골이지만 이동환의 집은 꽤 유족한 편이었는데 그는 조부의 방침대로 어려서부터 한학을 배우게 되었다. 21세에 신학문을 배우라는 친구의 말에 공감하여 서울의 신식학교에 들어가 인생의 전환기를 맞이하였다. 1921년 백남규(白南奎)가 경영하던 한성강습소에 들어가 6개월 만에 보통학교 과정을 마치고 이듬해 4월에 중앙고등보통학교에 입학하였다.

중앙고등보통학교는 이용직(李容稙), 지석영(池錫永), 이상재(李商在), 윤효정(尹孝定) 등이 활동하던 기호흥학회가 1908년 6월 20일에 설립한 사립 기호학교의 후신이었다. 그는 이 학교에서 현상윤(玄相允)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이 학교에 국어 및 국사교사로 권덕규(權德奎)가 있었고, 체조 및 훈육교사로 소년군을 조직했던 조철호(趙喆鎬)가 재직하고 있었다. 이들의 영향으로 이동환은 한국의 역사와 민족을 재인식하고 민족주의 이념을 확고히 하게 된 것이다.

6·10만세운동을 주도하다

1926년 4월 25일 오전 6시 10분 순종 황제가 승하하였다. 언론에서는 순종황제의 환후가 위중하다고 호외만 발행하고 총독부에서는 당일에 국상을 발표하지 않았다. 순종이 승하한 날짜가 하루 늦은 26일 일본 궁내성은 오전 6시 10분에 승하하였다고 정식으로 발표하였다. 그리고 인산일은 6월 10일로 정하였다.

이동환은 이 때 무엇인가 하기로 결심하고 중동학교 김재문과 함께 시내 각 공사립 중학교 학생들을 물색한 끝에 4~5명을 5월 23일(일요일) 서울 시내 혜화동 밖 삼선평 운동장에 모이게 하였다. 이들은 "돌아오는 인산일(因山日/장례식)에 무엇을 하면 좋겠느냐"고 서로 의논하였다. 학생들은 모두 만세를 부를 것을 주장하였다. 이동환은 "몇 번 부르다가 잡혀가는 것 보다는 총독부를 비롯하여 일본인 대관들과 일본인이 집단적으로 거주하는 본정 일대를 폭파하여 일인들을 몰살시키자."는 의견을 말하였다. 여러 학생들이 그 의견에 크게 찬동하였으나 정작 그렇게 하자고 자원하는 학생은 없었다. 한쪽에서는 "우리는 전도가 양양한 학생들이니 그렇게까지 희생하면서 과격하게 하는 것은 시기상조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더니 결국은 옥신각신 끝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이동환은 크게 한숨을 쉬고 구슬같은 눈물을 쏟았다. 그리고는 함께 일할 동지가 없는 것을 한탄하면서 "너희들만 전도가 양양한가. 나도 귀중한 몸이다. 못할 사람은 다 가라."고 소리쳤다. 학생들은 하나씩 둘씩 각기 헤어졌다.

다음 날 24일 이른 아침에 이동환은 동급생 박용규와 함께 김재문이 기숙하는 통동(종로구 통인동) 71번지 김소사의 집에 가서 김재문, 황정환, 곽대형 등 다섯 사람이 모여 순종 황제의 인산일에 '대한독립만세'를 부르기로 결정하고 독립선전문을

다음과 같이 작성하였다.
조선 민중들아! 우리의 철천지 원수는 자본 제국주의 일본이다.
2천만 동포여! 죽음으로 결단코 싸우자. 독립만세, 조선독립 만세!
단기 4259년 6월 10일 조선 민족대표 김성수·최남선·최린

이 선전문을 이동환·박용규·김재문·황정환·곽대형 등 다섯 사람이 5월 26일부터 30일까지 5만여 장을 등사하여 숨겨 두었다가 6월 8일 석양에 13도 지방에 있는 각 중학교에 봉투 하나에 선전문 5~6매씩을 우송하고, 서울에 있는 각 중학교에는 각 학교 우체통에 넣어서 배부하였다. 9일 밤에는 통동 본소에서 마지막 모임을 열고 그 이튿날인 10일에 각자 도열 장소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대여(大輿)를 봉송한 후에 대중에게 선전문을 뿌리기로 합의하였다. 이때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부르기로 굳게 맹세하고 각각 1만 여 장씩을 나누어 갖고 집으로 돌아갔다.

인산 당일 이동환은 이른 아침 5시 경 중앙고보에서 4학년 최제민에게 선전문 5백여 장을 나누어 주었다. 또한, 4학년 갑을반 반장 계익정(桂益禎)·김규순(金圭淳) 등 각 학년 반장들에게 수백 장씩을 나누어 주고 6·10만세 운동의 취지를 설명하는 한편, 대여를 봉송한 후에 선전문을 살포하면서 대한독립만세를 크게 외치라고 권유했다.

대여(大輿)를 봉송하고 난 뒤 이동환은 학생들 앞으로 뛰쳐나와 선전문을 사방으로 뿌리면서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이에 왜경은 이동환의 사지를 나누어 잡고 닥치는 대로 폭행하였다. 왜경은 이동환의 호주머니에 꽂힌 만년필을 빼서 이마를 찔러 상반신을 피투성이로 만들었다. 정사복 순경뿐만 아니라 기마순사·기마헌병·무장군대까지 출동하는 바람에 현장은 아비규환의 수라장이 되는 동시에 수 백 명의 학생들이 붙잡혀 갔다. 연희전문 학생들은 관수교 부근 동편에 있다가 어여를 봉송하고 오전 9시 경에 이병립과 박하균이 학생들의 도열 앞에 진출하여 격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휘날리며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다. 김규봉(金奎鳳)·권오상(權五尙)·한일청(韓一淸)·이석훈(李錫熏) 등 전교생이 호응하였다.

중앙기독교청년회관 박두종은 을지로 5가 경성사범학교(현 서울사대 부속초등학교) 앞에서 또 경성제국대학 예과 이천진은 훈련원 봉결식장에서, 중동학교 김재문·황연환·곽대형은 오후 2시경에 동대문 밖 숭인동 종묘 뒤에서 각각 어여를 봉송하고, 최후의 의병장이 통과한 뒤 격문 또는 선전문을 뿌리고 태극기를 휘두르며

대한독립만세를 목이 터져라 외쳤다.

6월 10일 만세현장에서 중앙고보생 1백 여 명과 연희전문학생 70~80명, 기타 학생 수십 명이 체포되어 모두 종로경찰서에 유치되었다. 통동운동의 주모자로 중앙고보 학생 이동환·박용규, 중동학생 김재문·황연환·곽대형 등 5명과 연루자로 중앙고보생 27명을 6월 19일 경성지법 검사국에 송치하여 서대문형무소에 수감하였다.



사 진

18) 향산 이동환선생 공적비(산외면 척곡마을)
사진 제공: 정읍근현대사연구회원 박경철·박경희

검사국에서는 통동계열 운동의 주모자에 대해 대정8년 제령7호와 출판법 위반 죄명으로 6월 24일 정식으로 기소하여 공판에 회부하고, 기타 학생 60여 명은 기소유예로 석방하였다. 1927년 3월 25일 공판이 열렸다. 1심에서 검사가 "한강이 역류할지언정 조선독립은 불가능하다."라고 말하자 이동환은 "한국이 당장에 독립은 안 된다 하더라도 우리 민족에게 민족정신을 앙양하고 독립사상을 고취하고자 하였다."고 말하였다. 1927년 4월 1일 경성복심법원 판결에서는 피고 학생 11명 전원에게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유희면만 3년 간의 집행유예로 당일에 석방하였다. 기타 피고 10명은 징역 1년에서 6개월 반은 미결구류 일수에서 통산하고, 서대문형무소에서는 5개월 반을 복역하고 1927년 9월 20일에 출옥했다. 11명은 서대문 감옥에 수감되던 날부터 출감할 때까지 모두 독방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천진은 귀가 얼어터지기도 했다.

6·10만세운동, 민족유일당 운동의 신호탄이 되다

식민통치의 상징인 총독부를 폭파하고 일인들을 폭살하고자 했던 이동환의 거사는 당시로서는 실행 가능성이나 성공 여부가 지극히 낮은 것이었다. 하지만, 실행 여부를 떠나 그 같은 엄청난 발언이나 계획은 학생운동에서 전례를 찾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 어린 나이에 일제 식민통치하의 우리 민족의 현실을 정확히 인식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더욱 놀랍다.

6·10만세운동은 3·1운동 이후 민족주의 운동이 침체에 빠져 있었고 3·1운동을 주도한 민족주의자들은 관망만하는 상태에서 사회주의자들이 일부 비타협적 민족주의자 그리고 학생들과 연합했다는 점, 이로써 민족주의계와 사회주의 계열이 통합되어 다음 해 신간회(新幹會) 결성의 결정적 계기로 작용함으로써 민족유일당 운동의 신호탄이 되었다는 데 의의가 있다. 또한, 이전의 운동이 민족주의 색채를 띤 식민지 교육에 대한 반항이었으나, 이후에는 사회주의 영향 아래 식민지 노예교육 자체를 부정하는 항일민족운동으로 승화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일제강점기 제1의 종교, 보천교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다

일제강점기 보천교는 자칭 '6백만' 신자를 자랑하고 있었다. 보천교에서는 100명의 인원을 포교해야만 간부 직책이 주어졌다. 당시 간부가 557,700명 이었다 했으니 교단 측 주장처럼 600만이라는 숫자가 가능해 보인다. 그러나 1923년 조선의 인구는 1,700만이었다. 따라서 600만 신도는 과장된 표현으로 보고 있다.

한편, 보천교 쪽 관련 자료인 『보광』(普光/1923) 창간호 2쪽에는 수 백 만, 5쪽에는 600만, 9쪽에는 300만으로 기록되어 있으며, 『도훈』(道訓) 9쪽에는 "교리와 강령을 정하고 사방에 선포하니 소문을 듣고 온 자가 600만이 된다." 하였다. 이로써 본다면 당시 교단 자체 내에서도 정확한 신자 수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고 이강오(李康五) 교수는 『한국신흥종교총감』(韓國新興宗敎摠監)에서 200만으로 추정한 바 있으나, 종교학계에서는 『동아일보』의 기사를 근거로 100만 정도로 보고 있다.



사진19) 언론에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차경석
-『동아일보』 1929년 7월 24일

■사진 설명: 일본 동경에 있는 학습원대학 우방문고 소장의 사진이다. 중앙이 삼성산이고 오른쪽 전면이 필봉이다. 그 앞쪽 능선은 입암산으로, 삼성산 뒤쪽 능선은 망해봉으로 이어진다. 사진 우측에 보이는 가장 큰 건물이 십일전이고, 그 왼쪽이 삼광문이다. 아래쪽 즐비한 초가집은 교도들이 살던 집이었다. 간부들인 방주들이 살았던 곳은 현 대흥초등학교 후문 쪽(종로)에 있었다. 종로에는 방주공실(方主公室) 50여동과 각지로부터 이주한 전입자들의 가옥이 수 백호 있었다.



사진20) 사진은 언제, 누가 찍은 것인지 확인하기 어려우나 아마도 일제가 『시정25년사』를 편찬하기 위해 찍은 자료사진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조선총독부 경무국 조사에 따르면, 보천교는 1918년 4,407명, 1919년 12,935명, 1920년 19,725명으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다 1925년 35,106명을 기점으로 이후에 신자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럼에도 보천교에서는 1925년부터 성전을 건축할 정도로 충분한 자금력을 확보하고 있었다. 현재 교금 모집과정을 밝혀줄만한 자료가 발견되지 않고 있으나, 엄청난 교금을 확보하고 있었음을 방증할 만한 자료가 몇 가지 남아 있다.

하나는, 당시 신자들의 일부 치성금이 일제에 의해 발각되는 사건이 있었다. 즉 1918년 제주도에서 강대거(姜大擧)가 성금 7만원을 면화 포대 속에 가지고 오다 발각된 것이다. 이와 같이 치성금이란 명목으로 유입되는 경로는 여러 가지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간지에 보도된 것은 그 가운데 하나에 지나지 않았을 것이다.

또 하나는, 전 재산을 바치고 입암면 대흥리로 이주해 오는 탄갈자(殫竭者)가 적지 않았다는 점이다. 원래 정읍 대흥리는 평산 신씨(5호)가 터를 닦은 중흥(中興)과 연안 차씨(5호)가 자리 잡은 진목(眞木) 그리고 김해 김씨(5호)들이 입주한 신평(新坪)을 합한 한가로운 마을이었으나 보천교가 자리하면서 15호에 해당하는 한적한 마을이 갑자기 700여 호를 헤아리게 되었다고 한다. 바로 이들이 전 재산을 교단에 바친 탄갈자였을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보천교의 핵심 브레인이자 명실상부한 실력자로 활동했던 이상호·이정립 형제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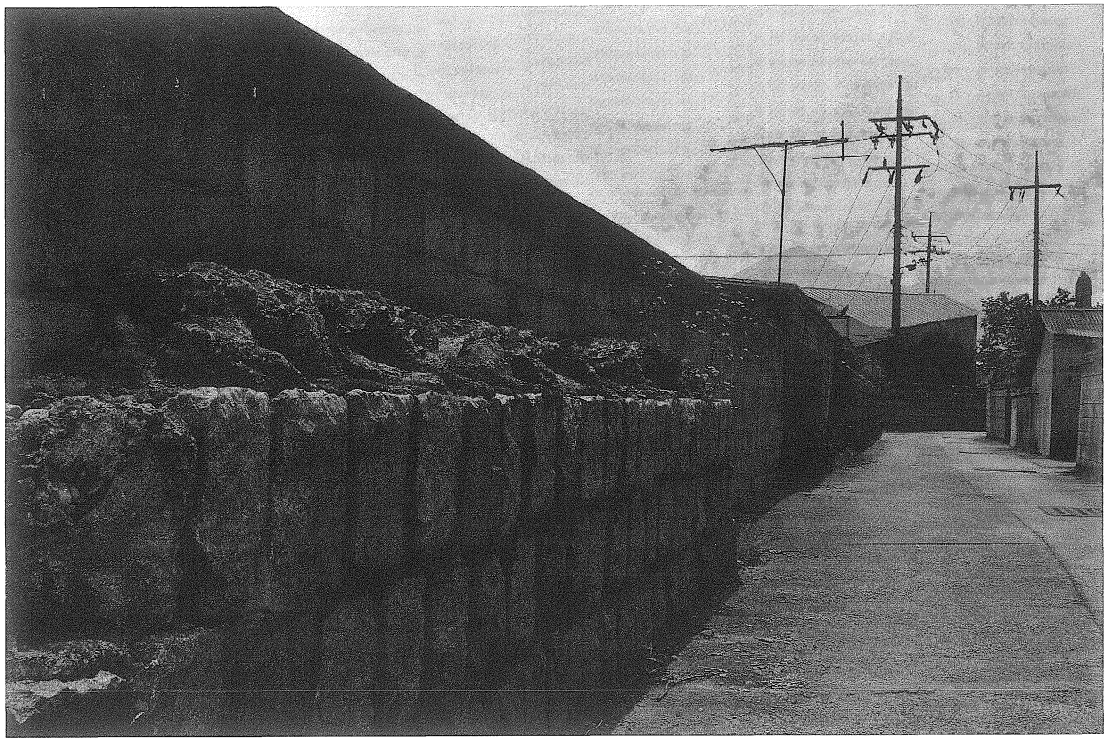


사진21) 보천교 석축 담장(입암면 대흥리)

마지막으로 보천교에서는 1925년부터 1929년까지 대흥리 2만평 부지에 40여 동의 웅대한 교전을 건축할 만큼 충분한 자금을 확보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보천교 본소로 불렀던 이곳은 들어갈 때부터 나오기까지 1시간 이상이 걸린다 했고, 공사비용만 150만원이 소요되었다 했다. 그렇다면 35,000명의 신자를 가지고서도 이러한 교금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몇 가지 정황을 근거로 보천교는 독립운동을 지원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반이 충분히 마련된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시국대동단 결성으로 친일단체로 의심받다

보천교는 1925년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이 결성된 이후에도 사실 상 임시정부의 독립운동을 지원하고 있었다. 시국대동단은 친일단체인 각파유지연맹의 일부 인사가 떨어져 나와 보천교와 합작하여 조직한 단체였다. 『개벽』에 따르면, 1924년 9월 "각파연맹의 채기두(蔡基斗), 고희준(高羲駿) 등이 기회를 엿보고 보천교의 임경호(林敬鎬), 문정삼(文正三) 등을 누차 면회한 결과, 보천교는 각파 연맹의 부관적(附官的) 세력을 신뢰하고 각파연맹은 보천교의 다중다재(多衆多財)한 것을 신뢰하야"

서로 힘을 모으기로 했다고 한다. 『동아일보』는 결성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보도하였다. 시국대동단은 친일 단체로 지목되는 11개 단체 중 40여 인이 각파유지연맹을 조직하고, 그 후 이 연맹의 취지가 공명을 얻지 못하고 재정 궁핍으로 활동을 하지 못하자 최근에 이 연맹에 가입한 40여 인 중 10여 인과 보천교주 차경석 휘하의 10여 인이 중심이 되고 그 밖의 참가자를 합하여 발기자 69인의 명의로 결성했다고 하였다(『동아일보』, 1925년 1월 9일자). 강령은 내선인의 정신적 결합을 견고히 하고, 대동단결하여 문화의 향상을 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세간에 보천교는 제2의 각파유지연맹이며, 종래 일종의 의문으로 주목되는 보천교가 금번에 친일로 태도를 명백히 한 것이다. 라는 풍문이 있었다. 조선일보』는 다음날 논설을 통해 시국 대동단 결성은 보천교의 자멸책이라고 평가하였다.

그러나 언론의 보도와 다르게 보천교에서는 시국대동단의 결성여부와 관계없이 암암리에 민족운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였다.

〈표2〉 보천교의 민족운동과 관련된 사건

발생일자	사건 명	내용	출처(기사)
1918.10	제주 법정사 항일투쟁	법정사 교도 30명 중문리 경찰관 주재소 습격, 방화 전소	明治百年史叢書(1967)
1921. 5	태을교도 국권회복 운동	태을교도의 목적은 국권 회복에 있다하여 운동자금 징수	高警第13765號(「江原道における太乙教徒獨立團員檢擧の件」)
1920. 9	태을교도 국권회복 운동	조선독립 사상 고취	(동)1921.2.19
1921.8.6	태을교도 국권회복 운동	조선독립 기도 성금수합	(동)1921.4.30
	상해 임시 정부 독립운동 자금 지원	나용균을 통해 임정에 전달(?)	(동)1925.10.2
1921	상해 임시정부 군자금조달	전주에서 11만원 압수	(동)1922.2.24
1922	세계약소민족회의 참가 여비 지원	차월곡이 최팔용과 장덕수 통해 1만원 지원	歷史批評(1989년 여름호)
1924	김좌진 장군 군자금 지원	2만원으로 무장대의 편성 가능	亞細亞局第3課關機高授第32743號.
1924. 3.26	상해 임정에서 보천교 본소에 군자금 모집	경찰에 체포	(동)1924.4.1
1925.11	조만식(趙晩植) 권총단사건	천진불변단장(天津不變團長) 조만식이 요인 암살, 군자금 모집 목적으로 본소에 잠입	(조)1925.1.21
1925.12	정의부 독립운동 자금	군자금 모집위해 비밀리에 잠입	(동)1925.12.11
1929. 9	보천교도 금방주 김규찬의 형 김규정 수사	김규정이 의병으로부터 받은 권총 1자루와 탄환 10여 발을 보천교와 연관지어	『보천교연혁사』(1958)

제주도 법정사에서 항일투쟁을 전개하다

〈표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18년 10월 남제주도 좌면(지금의 중문)에 위치한 법정사에서 보천교도의 항일투쟁이 있었다. 차경석과 경북 영일 출신 김연일(金蓮日) 등이 서로 모의해 같은 해 9월 19일 구 맹란분회(舊 孟蘭盆會/머슴날)에 즈음하여 제주도 법정사에서 교도 30명을 소집하고, "왜노는 우리 조선을 병합시켰을 뿐만 아니라 병합 후에 관리는 물론 상인에 이르기까지 우리 동포를 학대해 혹우(酷遇)시켜, 실로 왜노는 우리 조선 민족의 구적(仇敵)이 되어, 머지않아 불무황제(佛務皇帝)가 출현해 국권을 회복시키므로 교도들은 제일 먼저 제주도내에 거주하는 관리를 완전히 살해한 후 상인을 구축(驅逐)시켜야 한다."며 설득하였다. 10월 4일 밤부터 다음날 5일에 걸쳐 김연일은 그 배하(配下)를 도내 각지에 보내 신도 33명을

법정사에 소집하고 스스로 불무황제라 칭했다.

그리고 위와 같은 목적을 결행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그 방법을 협의해 대오를 정리한 다음, 부근 각 면, 리장에게 "일본 관리를 소멸하고 국권을 회복해야 하므로 다시 장정을 거느리고 참가하라. 따르기를 꺼리는 자는 군율에 따라 엄벌에 처한다." 라는 격문을 배포하였다. 6일 밤부터는 제주성 내로 향해 행동을 개시하고 7일에는 중문리에 도착하여 경찰관 주재소를 습격해 방화, 전소시켰다.



사진22) 법정사 항일운동 기념탑(제주도)/사진 제공: 안후상(독립운동사전 편찬위원)

사건 주모자 31명(재판기록은 34명) 가운데 김연일(金蓮日)과 정구룡(鄭龜龍), 강민수(姜敏洙)가 승려이고 박명수(朴命洙)만이 보천교 수령으로 되어 있어 불교계 일각에서는 불교인들이 주동이 된 항일투쟁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보천교에 대한 좋지 않은 선입견이 크게 작용했거나 세월이 흘러 불교로의 전향을 시도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기도 한다. 왜냐하면, 제주 법정사 항일투쟁은 관련자의 후손 상당수가 보천교 본소가 있던 정읍에 그 본적을 두고 있다는 것을 제주 보훈지청에서 확인했기 때문이다.

일제도 제주도 법정사 사건의 수령을 전라도 정읍 대흥리의 차경석으로 보고, 이

들이 은밀히 국권회복을 도모하면서 교도가 5만 5천에 달하면 일제히 독립운동을 일으키고자 하는 일종의 배일 음모단체로 규정하였다. 법정사 항일항쟁은 3·1운동 이전 일제에 항거한 단일 투쟁으로는 최대 규모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아주 크다.

태을교도의 이름으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다

1921년 5월 강원도에서는 국권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태을교도 독립단원의 검거가 있었다. 태을교는 증산 사후 최초로 형성된 종단이지만 차경석이 태을교의 교권을 장악한 후, 1921년 경남 함양에서 고천제를 지내고 보화교를 선포하기 전까지 선도교, 흠치교 등 증산계 교단를 통칭하여 불리던 명칭이었다. 일제가 조사한 이들의 혐의사실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김문하(金文河)는 시천교(侍天敎) 신자로 배일사상을 가지고 오로지 동지의 규합에 노력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그의 처가 질병이 있을 때인 1920년 12월 5일 태을교도로서 원산지청에서 취조중인 이치홍(李致弘)을 방문하였다. 이 때 이치홍은 태을교를 신앙하면 처녀의 병기를 완전하게 낫게 하는 것은 물론이고, 이후로 재액을 만나는 일도 없을 것이라는 감언으로 유혹하였다. 이로 인해 김문하 외 2명이 입교하게 되었다.

1921년 2월 18일 이치홍은 김문하를 초대하여 태을교 이면의 목적은 국권회복에 있다고 말하고, "태을교 수령 차석정(車石井/필자주: 차경석 지칭)은 본년 중에 황제가 되려고 운동 중에 있다. 그래서 신자들은 일치 협력하여 그의 목적달성에 노력해야 한다. 이로써 교주 차석정은 관통공부라 칭하는 신술을 연구 중에 있다. 가까운 시일 내에 완성이 되면 세상만사가 자기의 뜻대로 되는 것은 물론이고, 공중을 나는 것도 자유롭게 되며, 신자 1인으로써 1백 만의 병사에 대항할 수 있기에 이른다."고 하였다.

따라서 금년 5월 이래 경찰 관리 및 일본 군대를 살해하는 것도 자유자재라고 말하고 또 태을교 수령이 조선국 황제가 되어 상당한 관직을 줄 것이라고 선전하였다. 김문하는 이를 흔쾌히 허락하고 박경문 외 9명을 입교시켜 3월 2일에서 동 17일 경에 국권회복의 운동 자금으로 각자 12원씩을 징수하였다. 김문하는 이를 이치홍에게 교부한 이래 신자에게 대하여 미신적 언사를 농하였던 것이다. 이때 검거된 사람들은 〈표4〉 와 같다.

일제는 이와 같은 태을교도들의 국권회복운동을 차단하기 위해 태을교 전반에 관해 조사하고 이에 관한 정보를 보고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태을교는 '흠치교', 또는 '보천교'라고 칭한다고 시작하고 있다.

〈표3〉 강원도 태을교도 독립 단원 검거자 명단

성명	나이	직업	주소
김문하(金文河)	43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53번지
김정식(金貞植)	2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70번지
박정찬(朴貞燦)	34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74번지
김경식(金景植)	5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15번지
박경문(朴璟文)	21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30번지
이달제(李達濟)	2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70번지
한용서(韓龍瑞)	44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40번지
박명호(朴命浩)	69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230번지
임현한(林顯漢)	54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9통3호
조병하(曺秉河)	29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37번지
김원하(金元河)	49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68번지
김문환(金文煥)	23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36번지
진문협(秦文狹)	36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6통8호
김순발(金順發)	15	농업	이천군 판교면 광현리 138번지

* 출전: 高警第13765號, 〈江原道における太乙教徒獨立團員檢擧の件〉;
金正明 編, 《朝鮮獨立運動》 民族主義運動篇, 原書房, 1967, 595쪽.

이외에도 크고 작은 태을교도의 국권회복운동에 관한 내용이 일간지에 보도되고 있다. 그 가운데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경북 문경군 수순면 이화리 356번지 강진수(姜晋秀/21)는 대정 9년(1920) 9월 이래로 태을교 신자가 되어 교를 전도하며 조선독립운동하기를 진력하여, 교를 전하는 말끝에는 조선독립사상을 고취하며, 인민을 권고하여 독립을 희망하는 동시에 우리 태을교에 가입하라 하며 책을 편찬하였던 바, 책에도 조선독립사상과 및 조선총독 정치의 변혁할 취지를 기재하여 인민을 선동한 사실이 발각되어, 경성지방법원 원주지청에서 징역 8개월에 처한 것을 불복하고 경성복심법원형사부에 공소를 제기한 사실을 기재하였거니와, 동법원에서는 작일 제2심 공판을 마치고 오는 20일에 판결 언도한다더라.

1921년 평양경찰서에서는 채선묵, 김규당을 검거하여 … 동교의 교조 강증산은 오는 을축년(1925)에 다시 살아나서 황제가 될 터인데, 그렇게 되면 동교

신도 중 유력한 사람을 관찰사…군수 등의 요직에 임명할 터이며, 일반 신도들에게도 다수 이익을 얻게 할 터이라 권유하고, 또 금년부터 오는 을축년까지 다섯 해 동안에는 세계가 크게 어지러워서 각국이 다 자기나라 진정에 전력을 다하고 타국에 간섭할 틈이 없을 터이므로, 그때에 강증산이 강림하여 조선독립이 완성될 터이며, 내년에는 전 세계에 악한 병이 유행하고 채소 같은 것도 모두 그 독기를 받아서 사람이 이것을 먹으면 모두 병들어 죽게 될 터이므로, 동교 신도에게는 금년 9월까지 악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예방약을 제조하여 분배할 터이며, 각 도에 정리장·부정리장, 각 군에 정포교장·부포교장을 두고, 각 면에 정정의·부정의를 두어 신도모집을 계획코저 한 것이라더라.

백희백은 재작년 음력 6월경에 태을교에 가입하여 은밀히 조선독립을 운동코저, 그 교의 교주되는 차경석이가 조선이 독립되면 조선왕국이 되어 계룡산에 도읍하고, 태을교도는 모두 큰 벼슬을 한다는 허무황당한 말을 전파하여 교인을 모으고, 담뱃대에 태극과 칠성을 새기어 한국을 기념하고 제단을 모으고 칠성에게 조선이 독립되기를 기도하였으며, 작년 음력 3월 경에는 신자에게 다수한 금액을 거둔 것이라더라.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볼 때 보천교는 적어도 1920년대 초반까지는 민족운동 진영에 진출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사진23) 나용균(1895~1984)

상해 임시정부와 김좌진에게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하다

보천교의 민족운동 가운데 상해 임시정부에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한 것이 그 대표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 임규(林圭)가 보천교로부터 5만원을 얻어내 나용균(羅容均)에게 전달한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처음 장덕수를 통해 자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그가 하와이로 간다 하여 다시 나용균을 통하여 임시정부에 보내게 되었다. 그런데 이 자금이 실제로 임시 정부에 전달이 되었는지는 의문이다. 나용균이 자금을 받은 즉시 영국 옥스퍼드대학으로 유학을 갔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자금의 임정 전달 여부와 관계없이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아주 중요한 사실로 받아들여진다. 아무튼 임규가 이런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한 때 보천교를 믿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동아일보』는 1922년 임규가 보천교에 들어가 우매한 교도들을 선도하고자 노력했으나, 뜻을 이루지 못하고 탈교한 것으로 보도하였다.



사진24) 상해 임시정부 자리/사진 제공: 정읍역사문화연구소

1921년에는 보천교에서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려는 군자금 11만원이 전주에서 발견되었다. 『동아일보』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전하고 있다.

> … 강일순이가 죽을 때 유언하기를 '내가 죽은 지 몇 해 후에 계룡산에 재림하겠다.'고 말했다는 풍설이 있고, 또 차경석이가 천자가 된다는 풍설도 유행하여 교도의 검거가 심하던 터에, 작년 봄에 전주에 모아놓았던 돈 11만원이 압수되는 동시에 당국에서는 크게 놀라 상해가정부로 보내려는 군자금으로 인정하고 크게 검거를 행하여, 강원도 일대와 삼남 지방에 수천의 교도가 검거되었고 …

라고 하여 일제는 전주에서 발견된 돈을 보천교에서 상해 임시정부로 보내는 군자금으로 파악하였다. 이것이 임시정부에 전달이 되었다면, 임정의 어려운 재정 형편에 큰 도움이 되었을 것이다. 임정에서는 수립 초기에 인도인을 고용해서 수위로 세우기도 했었는데, 정부 청사 집세 30원과 20원도 되지 않는 고용인 월급을 주지 못해 번번이 소송당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이 같은 정황을 생각해 볼 때 11만원은 임정의 회생자금으로 충분했을 것이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알려진 대로 임시정부의 독립운동 자금이 주로 미주에서 보내는 동포들의 성금과 국내외 일반인에게 징수하는 인구세,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발매하는 공채, 대소·대미차관, 국민의 지원에 의하여 납부하는 애국금만으로 충당한 것이 아니었다는 이야기가 된다. 이러한 재원만으로는 독립운동 자금이 턱없이 부족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래서 대안으로 제시된 것이 보천교의 자금이었을 것이다.

한편, 보천교에서는 1922년 고려공산당에서 세계 약소민족회의에 참가하고자 김규식(金奎植)과 여운형(呂運亨), 나용균(羅容均), 장덕진(張德震) 등을 파견하기로 결의하였을 때, 이에 대한 여비를 차월곡은 최팔룡(崔八鏞)과 장덕수(張德秀)를 통해 1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특기할 만한 사실은 보천교에서 김좌진에게 2만원의 군자금을 제공하여 무장대의 편성을 가능하게 했다는 점이다. 1924년 김좌진은 자금부족으로 부하들을 해산하여 활동불능 상태에 있었으나, 보천교 교주 차경석과 연락이 되어 2만원의 군자금을 받아 다시 무장투쟁 활동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같은 사실을 일제가 탐지하고 기밀문서로써 이를 기록으로 남기고 있다. 일제는 보천교를 배경으로 이같이 움직이는 김좌진의 활동을 탐지하고 상당한 경계를 하고 있었다.


사진25) 북로군정서 김좌진 장군

이외에도 1924년 3월 26일에는 상해 임시정부에서 온 사람이 보천교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러 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민족운동에 대한 차월곡의 의지는 보천교 수호사장(修好司長)을 지내다 상해로 망명했던 조만식(趙晩植)이 1925년 요인 암살과 군자금 모집을 목적으로 폭탄과 권총을 가지고 보천교 본소에 잠입하고 있었던 일에서도 잘 드러나고 있다. 조만식은 1886년 8월 10일 평남 평양부 상수리(上需里)에서 태어난 인물로 1919년 4월 18일 북경과 인접한 항구 도시인 천진에서 명제세(明濟世) 등 8인과 함께 '천진불변단'(天津不變團)을 조직한 바 있다. 그는 이 조직의 단장이었다. 천진불변단은 1919년 7월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비밀 외곽단체로서 승인받았다. 또, 현재로서는 확인하기 어려운 일이나 고하 송진우, 해방 후 건국준비위원장을 지냈던 민세 안재홍 그리고 여운형도 모두 보천교에서 비밀리에 군자금을 가져간 인물로 후손들은 증언하고 있다.

1925년 12월에는 정의부 의용군 별동대원 세 명이 이춘산(李春山)의 인솔 하에 군자금을 모집할 계획으로 대련을 거쳐 인천 방면으로 들어와 비밀리에 활동을 하고 있었다 정의부는 1924년 11월 24일 통의부·서로군정서·광정단·길림주민회·고본계·잡윤자치회·노동친목회 등 8개 독립운동 단체가통합해 성립된 것이다. 1920년대 중·후기 재만독립군정부로 활동했으며, 한민족의 자립 사회 건설을 위한 민정활동과

조국독립을 위한 항일 군정 활동을 펼친 단체였다. 그들의 잠입 목적은 보천교에서 20만원의 독립운동 자금을 얻기 위해서였다. 한편, 보천교에서는 정의부에 50만원을 지출하여 조선 동포들을 위하여 개척사업을 전개할 계획으로 있었다.

이렇듯 막대한 금액은 차월곡의 동의 없이는 인출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하다. 또,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임시정부에서도 이러한 차월곡의 의지를 간파하고 보천교와 연계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당시 보천교는 교세가 급속히 확장되면서 풍부한 자금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1926년 11월에는 보천교로부터 30만원의 거액을 변통하여 민족운동 단체로 보내려는 사건이 있었다. 사건의 내용은 피고인들이 모두 보천교도로, 표면으로는 보천교당을 짓는다하고 그 자금을 변통하고자 한 것이다. 또, 이것을 기회로 보천교주 차경석의 환심을 사 보천교의 돈을 끌어내어 만주 방면에 보내기를 획책한 것이다. 이는 보천교의 풍부한 자금력을 이용하고자 한 것으로 그간의 차경석의 독립운동 자금지원 사실을 사전에 간파하고 계획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또 전년도인 1925년 7월에 만주 모 단체에서 권총 두 자루와 탄환 40여 발을 비밀히 가져와 경남 함양군 석하면 웅위리 민태호(閔泰鎬)라는 사람의 집에서 부호들을 위협하여 자금을 모집하기로 의논하고, 모두 경성에 올라와 활동을 준비하고 있던 중에 관헌에게 이 사실이 발각된 적이 있었다. 이들 네 명은 제령 제7호 위반 '강도예비급총포화약류취체령위반'으로 기소되었다. 이때의 피고인 명단은 다음과 같다.

〈표4〉 피고인 명단

성명	나이	본적	주소
정당엽(鄭當燁)	33	전북 장수군 계북면 방전리	전북 정읍군 입암면 접지리
한규숙(韓圭淑)	38	경남 함양군 서하면 봉서리	전북 정읍군 입암면 접지리
조만식(趙晩埴)	40	평양부 상수리 91번지	경성 통동 133번지
정찬규(鄭燦奎)	40	평양부 수정(번지 불상)	평양부 수정(번지 불상)

* 출전: 『동아일보』, 1926년 11월 14일.

이들이 끌어들이고자 한 30만원은 당시 침체 일로에 있던 임시정부가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데 상당한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22년 이후 임정은 재정수입이 급격히 줄어 정부의 현상 유지조차 어려운 상태에 있었기 때문이다. 임정이

상해 체류 기간 14년 동안 (1919~1932) 7번 정도 청사를 옮겼다는 것 자체가 재정적으로 어려워 임대가격이 저렴한 낡은 장소로 옮겨 다녔다는 증거가 된다.

1929년 9월에는 정읍경찰서로부터 엄밀한 수색을 받았다. 금방주(金方主/보천교의 간부직책)인 김규찬(金奎燦)의 백형인 경북 예천군의 김규정(金奎定)이 의병으로부터 받은 권총 1자루와 탄환 10여 발이 문제되었기 때문이다. 이 때 정읍경찰서에서는 김규정을 구속하여 보천교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다수 구입하여 분배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한 것이다. 이것으로 볼 때 일제는 보천교의 간접적인 독립운동을 희미하게 감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상에서 서술한 보천교의 민족운동사적인 측면을 정리하면, 1920년대 초반 태을교라는 이름으로 국권회복운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시국대동단이 결성되는 1925년 이후에도 독립운동 관련 단체와 밀접한 연관을 맺고 있었다.

이와 같은 이유 외에 필자가 보천교 운동을 독립운동의 일환으로 보는 또 하나의 이유는 당시 보천교가 종교를 표방하고 있었지만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교리가 없었다는 점이다. 『보천교연혁사』(普天敎沿革史)나 『교전』(敎典), 『도훈』(道訓) 등은 교주 사후에 나온 책이며, 『보천교연혁사』의 경우, 말 그대로 연혁을 기록한 것일 뿐 교리에 대한 특별한 언급이 거의 없다. 또한 보천교 간부조직인 24방주를 조직했던 1916년부터 1928년까지를 홍범초(洪凡草)는 '원태을교'(原太乙敎) 시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교단 내에서는 원년으로 삼고 있는 1909년부터 무진훈사(戊辰訓辭)가 있었던 1928년까지를 '은도시대'(隱道時代)로 규정하고 있다. 사실 이 때까지도 교리에 해당할만한 내용이 없었던 것이다. 또 차월곡 자신이 "보천교는 교(敎)가 아니라 도(道)"라고 말한 적이 있었다.

따라서 교주 차월곡은 정치적 성향이 다분히 있었던 인물로 일제 강점 하에서의 암울한 시대상황을 인식하고 조선독립을 갈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일제의 식민지 상황 하에서 한계가 있었다. 한때(1925년) 보천교의 교리 및 대동단의 취지를 널리 알리고 탄압을 완화시킬 목적으로 교인들을 일본에 파견한 적이 있었다. 이 때 천황의 생일인 천장절이 가까워지자 3천 원이라는 거금을 헌납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당시 보천교는 진퇴양난의 입장에 있었다. 관에서는 배일단체로 지목하고 있었고, 조선사회에서는 친일파로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보천교는 이러한 한계로 말미암아 결국 독립운동을 효과적으로 추진하지 못하였다. 또 민중들이 그

렇게도 열망하던 조선독립이 이뤄지지 않은 채 1936년 56세의 나이로 차월곡이 사망하였다. 그러자 신자들이 이탈하고 전 재산을 교단에 바친 탄갈자(殫竭者)들은 재물을 사취한 사기행각이었다고 억울해 했을 것이다.

보천교에서 형평운동을 지원하다

형평운동은 봉건적 유제를 타파하고자 한 사회개혁 운동이자 백정들의 신분차별 철폐를 부르짖었던 권익신장 운동이었다. 형평사에서 벌인 신분차별 철폐운동이 갖는 반봉건성에 유의한다면, 형평운동의 근대지향적인 요소에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형평운동은 진주에서 시작되어 전국으로 운동이 확산되면서 사회변화를 가져왔다는 점에서도 주목할 만 한 사회운동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대동사로 개칭되어 이해관계가 동일한 자들의 친목단체, 경제적 이익단체로 전락했다. 이에 따라 인권운동을 표방했던 형평운동의 본래 목적과 의미마저 변질되어 그 의의를 잃게 되면서 대동사는 해체된 것이다.



사진26) 형평운동 포스터(형평사 제6회 전국대회)



사진27) 형평운동 기념탑(진주 촉석루 앞)/사진 제공: 정읍역사문화연구소

그런데 형평사가 형평운동의 목적인 차별철폐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회운동 단체와의 제휴 문제는 아주 절실한 것이었다. 이는 형평운동을 방해하는 세력을 배척하기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또, 당시 사회운동 단체의 입장에서도 형평사를 이용하는 것이 운동의 주도권 장악이라는 측면에서도 유리했을 것이다. 따라서 제휴는 얼마든지 가능하였다.

이에 형평사총본부에서는 전국 각지에 지·분사를 확대하고, 청년사원들로 하여금 '조선형평청년 총연맹'과 '형평학우동맹' 등을 조직케 하였다. 또 진정한 형평사회는 현 사회제도를 개선치 않으면 실현할 수 없다는 견지에서 일반 사회운동단체와 연대를 곧바로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형평운동이 시작되는 1920년대는 사회주의의 영향으로 각종 사회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던 시기였다. 형평운동은 사회주의의 수용으로 노동, 농민, 청년, 학생운동이 활발히 전개되는 가운데, 노동단체와 농민단체와는 그다지 활발한 관계를 유지하지 못했으나, 청년운동단체 및 사상단체와는 많은 연관을 맺고 있었다. 특히 사상단체 가운데 북풍회, 화요회, 자유회(개성) 그리고 청년단체에서도 가장 강력한 정예집단이라 할 수 있는 한양청년연맹과도 밀접한 유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었다. 또한 조선청년총동맹, 조선공산당, 서울파 공산주의자와 물산장려회계·민족주의자들의 그룹인 조선민흥회의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일본의 수평사와도 일정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

그럼에도 이러한 사회운동 단체의 지지나 제휴가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사상단체나 사회단체와의 연대활동도 '반형평 사건'과 같은 특정한 사회적 쟁점이 있을 때를 제외하고 여타 사회단체와 유기적 관계를 맺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이는 형평운동의 목표가 차별철폐일 때는 다른 사회단체와의 연대가 필요했으나, 1920년대 후반 활동의 목표가 경제투쟁 활동으로 선회한 뒤에는 굳이 다른 사회단체와의 연대관계가 필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데 형평운동 초기 형평사의 핵심멤버들이 보천교로부터 학교설립 자금을 지원받고자 정읍의 보천교 본소를 방문했다는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자료의 한계로 형평사와 보천교와의 연대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우나 몇 가지 정황을 통해서 양자 간 관계를 추정할 수 있다. 이를 위해 먼저 당대 보천교에 대한 일반인들의 인식을 살펴보고 이어서 형평사와 보천교와의 관계를 여러 정황을 근거로 양자 간 관계를 추정해보고자 한다.

보천교에 대한 당대 인식

일제강점기 보천교는 사이비종교였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 있었다. 이러한 일반인들의 인식에 일조한 것은 『조선일보』와 『동아일보』 등 당시 국내 일간지였다. 그러나 보도되지 않거나 다른 자료에서 발견되는 관련내용에서는 어느 정도 민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를 위해서 우선 보천교를 창시한 차월곡이 어떤 인물인가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당시 지식인의 한 사람으로 보이는 진주 사람이 보천교 창시자인 차월곡을 만나고 느낀 소회를 적은 글이 있다. 그는 「정읍의 차천자를 방문하고」라는 제하의 글에서 자신을 비봉선인이라고만 하고 이름을 밝히지 않은 채 그 느낌을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 내가 차씨를 보려고 정읍에 가기는 금년(1923) 4월 중순경이다. … 나는 본래 종교보다도 정치에 취미를 많이 두고 또한 차씨를 종교적 인물로 보지 아니하고 정치적 인물로 본 고로 보천교에 대한 진리여하는 묻지 아니하고 먼저 시국문제를 말하였다. … 장래 조선이 독립되고 보면 무슨 정체(政體)를 쓰는 것이 좋으냐? 고 물었다. 차씨는 무엇을 생각하는 듯이 있다가 말하기를 "그것은 그때 일반 인심을 관찰하여야 할 것이라."라 한다. … 세상 사람은 차씨를 일개 미신가요 또한 무식자로서 다만 우민을 유혹하여 금전을 사취하는 자라 한다. 그러나 내가 보기에는 그는 그렇게 무식한 이가 아니다. 비록 현시대의 지식은 결여했다 하더라도 구시대의 지식은 상당한 소양이 있다. 그 외 엄격한 태도와 정중한 언론은 능히 사람을 감복케 할만하다. 그는 한갓 미신가가 아니요, 상당한 식견이 있다. … 그를 차천자라 하는 것은 결코 그가 자칭한 것이 아니요 몽매한 교인과 비소(鼻笑)하는 세인이 칭호한 것이지만은 그의 여러 가지 용사(用事)하는 것을 보면 제왕될 야심이 만만한 것을 추측하겠다.

좀처럼 일반인들에게 면회가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차월곡을 직접 대면하고 쓴 이 글은 소문과는 다른 차월곡의 진면목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귀중한 자료로 여겨진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차월곡을 정치적 인물로 보고 있다는 점이다.

재가수행모임인 선도회(禪道會)의 초대 지도법사 종달(宗達) 이희익(李喜益/1905~1990) 노사(老師)가 보천교를 창시한 정읍의 차천자를 직접 만나고 난 뒤의 소회를 적은 다음과 같은 글이 있다.

지금까지 기억에 생생한 것은 전라북도 정읍에 갔을 때 보천교 교주인 차천자를 만난 일이다. 본명은 차경석(車京石)인데 자칭 천자였다. 나는 이 사람을 한 번 만나보고 싶었다. ……그 때 본관(大法堂)이 준공되었으나 도 경찰국에서 허가해 주지 않으므로 개관은 못하고 폐문하고 있었으나 특정인에게는 보여주었다. 불교법당처럼 꾸몄는데 부처님을 모시지 않으니 그 자리는 차천자가 앉을 것인데, 과연 천자 자리 같았다. 규모가 웅장했다. 결국 개관도 못하고 차천자 사망 후 보천교가 해산되었다. 그 건물은 서울에 옮겨졌고 현재 조계사 대법당이 그것이다. 이튿날 아침 면회했다. 몸은 뚱뚱하고 큰 상투에 대갓을 쓰고 얼굴은 구릿빛으로 까만 수염이 보기 좋게 나 있었다. 그 풍채가 과연 만인의 장 같았다. 저렇게 생겨야 무슨 일이고 할 수가 있구나 싶었다. 우선 체격이 좋고 외모가 잘 생겨야 협잡도 크게 해 먹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첫말에 불교는 포교가 자유롭지만 보천교는 경찰의 제재가 심해서 애로가 많다고 하소연했다. 일제 때 사이비종교의 탄압이 심했다. 독립운동을 하지 않나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 이런 풍문이 있었다. 차천자가 머지않아 등극하면 벼슬자리를 준다는 말을 믿고 전답을 팔아서 바치고 그 벼슬자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었다. 신앙도 이 정도에 이르면 오히려 편할 것이다. 일제 치하에도 이런 사이비종교가 있었고 해방 후 경향 각지에 이런 종사가 발호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위 글에서 이희익은 보천교의 창시자인 차월곡의 당당한 풍채를 묘사하고 있다. 또 보천교는 종교를 가장한 독립운동 단체로서 독립운동의 가능성을 부인하지 않으면서도 또한 사이비종교였을 것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인식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당대 일반의 인식과 실제 보천교의 모습과는 어느 정도의 괴리가 있는 것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즉 보천교가 사이비 종교였든, 민족주의적인 면이 있었던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할만한 구체적인 사실이 있었을 것이다. 필자는 이를 규명하기 관해 당시 일간지에 보도된 보천교 관련기사를 검토해봄으로써 이 두 가지를 함께 논의해 보고자 한다.

보천교는 1920년대 초반까지는 민족운동 진영에 진출하고자 했으며, 실제로 민족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었다.

보천교에서는 임규(林圭)를 통해 임시정부에 5만원을 전달한 일이 있었다. 임규는 기미독립만세운동에 깊이 관여했던 인물이다. 표면에 나서기를 싫어하는 성격이었기 때문에 드러내 놓고 투쟁하기보다는 뒤에서 독립운동을 돕는 일을 맡아서 했다. 그는 처음 장덕수(張德秀)를 통해 자금을 전달하려 했으나, 그가 하와이로 간다 하여 다시 나용균(羅容均)을 통하여 임시정부에 보내게 되었다.

또한 1922년 고려공산당에서 세계약소민족회의에 참가하고자 김규식(金奎植)과 여운형(呂運亨), 나용균(羅容均), 장덕진(張德震) 등을 파견키로 결의하였을 때, 이에 대한 여비를 차월곡은 최팔룡(崔八鏞)과 장덕수(張德秀)를 통해 1만원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렇듯 막대한 금액은 교주인 차월곡의 동의 없이는 인출될 수 없는 일임에 분명하다. 또 독립에 대한 열망이나 의지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다. 이와 같은 차월곡의 의지는 보천교 수호사장(修好司長)을 지내다가 상해로 망명했던 조만식(趙晩植)이 1925년 요인암살과 군자금모집을 목적으로 폭탄과 권총을 가지고 보천교 본소에 잠입하고 있었던 일에서도 잘 드러난다. 1924년 3월 26일에는 상해임시정부에서 온 사람이 보천교에서 군자금을 모집하러 왔다가 경찰에 붙잡히기도 하였다.

뿐만 아니라 1925년 12월에는 정의부 의용군 별동대원들이 보천교에서 독립운동 자금을 얻기 위해 국내에 잠입하고 있었고, 보천교에서는 정의부(正義府)에 50만원을 지출하여 조선동포들을 위하여 개척사업을 전개하고자 하였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은 보천교가 민족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었음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보천교는 '시국대동단'(時局大同團)을 결성하면서부터 자의든 타의든 친일에 앞장서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조선일보』는 1925년 1월 10일자 시평에서 "황당허망(荒唐虛妄)한 잡설로 시대에 역행하는 흠치교, 저들의 소위 보천교가 비록 형해(形骸)이나마 지금까지 존속하여 있다는 것은 확실히 현대의 치욕이요, 사회의 모독이다. 저들이 우민(愚民)을 모롱(侮弄)하여 그의 사복을 살찌울 계책이 이미 다하여 …"라고 하여 보천교를 강도 높게 비난하고 있다. 1925년 1월 9일 전남 영광군(靈光郡) 염산면(塩山面) 군남농민대회 임시총회에서는 보천교의 죄상으로 첫째, 종교의 가면을 쓰고 사회질서를 문란케 하며 둘째, 교육은 필요 없다 하여 어린이들의 교육을 막으며 셋째, 요술비결로 민중을 미혹케 하였다. 넷째, 허무맹랑한 괴변요설로 민중의 토지와 금전을 사기했을 뿐만 아니라 다섯째, '대시국천자'(大時國天子)라 자칭하고 관직을 예매하며 여섯째, 소위 시국대동단과 결탁하여 민중운동을

방해한 점을 들어 흠치교 박멸을 결의하고 있다.

이와 같은 보천교 관련기사는 시국대동단이 결성된 1925년에 눈에 띄게 늘어난다. 이밖에 일간신문에 보도된 보천교 성토대회에 관한 기사를 정리하면 대략 다음과 같다. 1월 18일 고창시국대동단 강연에서는 일선융화(日鮮融和)를 철저히 하여야 좋다는 것과 동양삼국이 대동단결하여 잘 살자는 취지의 강연을 하여 일반인들로부터 조롱과 비난을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해 전국 각 지역에서 보천교 성토를 결의하거나 성토 강연회가 열렸다. 마산청년회에서는 1월 27일 임시총회를 열고 보천교 성토를 결의하였다. 부산청년회에서는 2월 1일 20여 단체와 유지인사 30명과 함께 성토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원에서는 2월 4일 진해소작회, 진해노동회, 진해청년회 외 6개 단체의 대표가 모여 성토준비를 하고 흠치교 박멸에 진력할 것을 결의하였다. 2월 6일에는 김해청년회가 주관하고 『조선일보』 김해지국 외 7개 단체의 후원하에 보천교 성토 강연회가 개최되었다. 전남 영광군 군남면에서는 군남농민대회와 청년회 두 단체가 흠치교를 박멸하자는 선전 전단지를 작성하여 살포하였다. 이와 같이 1925년 이후에는 온통 보천교를 성토하는 글로 신문을 도배하고 있다.

이로 보아 보천교는 1925년 이전까지는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이 다분히 있었으나, 시국대동단 결성으로 말미암아 지식인들과 일반 대중들에게 사이비종교라는 인식을 심어주게 된 것으로 보인다.

형평사와 보천교, 연대 관계를 추진하다

형평사와 전라북도 정읍군 입암면에 본부를 두고 있었던 보천교와의 연대 사실을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사료가 아직까지 확인되지 않는다. 하지만 다음의 몇 가지 이야기를 통해서 형평사의 보천교 인식뿐만 아니라 연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 있다. 시기가 명확하지 않으나 형평사가 조직되기 이전인 1923년 3월 중순경 형평사 설립의 핵심멤버인 강상호, 신현수, 조우제 등이 학교설립 자금을 지원받고자 정읍으로 출장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정읍출장은 수포로 돌아갔다. 하지만 이로 인해 형평사의 조직이 구체화된 것으로 보인다. 다음은 김용기(金龍基)가 형평사 설립자 가운데 한 사람인 신현수(申鉉壽)의 증언을 바탕으로 기록한 글이다.

> 형평운동의 지도자인 신현수는 민족해방의 첩로는 민중의 계몽 국민교육이 선결문제라는 사회적 풍조에 따라 진주에서 몇 동지와 합세하여 유치원과 보

통학교 설립을 발기하였다. 그러나 사정이 여의치 않자 당시 천시하는 백정계급에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그 대표자인 강상호(姜相鎬)를 만나 그 취지를 말하였더니 일언지하에 쾌락을 받았다 한다. … 그 다음 해 3월에 전라북도 정읍에 본거를 둔 보천교 본부에서 교도확대 축하회가 있었는데, 그 식에 참석하는 지방 대표에 대하여는 선전비로 대금을 급여한다는 진주지구의 신도대표 조우제(趙祐濟)의 말을 듣고 그 대금을 받아다가 교사 건축자금에 충당하자는 의견의 일치를 보고 진주지구의 신도대표라는 명목을 띠고 신현수(申鉉壽), 강상호(姜相鎬), 조우제(趙佑濟) 32명이 정읍에 출장하였다. … 신·강 두 사람은 정읍 출장을 후회하며 진주에 먼저 들어왔는데, … 민족전선의 급선무는 백정계급의 해방이 선결책이라는 결론 하에 그 결사의 명칭을 생각하게 되었다…

여기서 세 사람이 보천교 본부인 정읍까지 갔으나, 결국은 선전비 대금을 받지 못하고 돌아왔다는 것이다. 즉 형평사와 보천교간 교섭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알 수 없으나 일이 원만하게 추진되지 못하여 실패로 돌아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개벽』(開闢)에는 이들과 보천교와의 관계가 아주 우호적으로 묘사되어 있다. 여기에 실린 기사를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진주 안의 경남 보천교의 두령으로 해교(該敎)의 발전을 위하야 만흔 노력을 하고 잇는 동아일보 지국장 정준교(鄭準敎), 전기자 윤병은(尹炳殷), 오경표(吳景杓), 조선일보 지국장 신현수(申鉉壽), 진양상회주(晉陽商會主) 강대기(姜大冀) 제씨와 개인으로는 심두섭(沈斗燮), 강상호(姜相鎬), 정성호(鄭成鎬), 강대철(姜大喆), 김형권(金亨權), 천석구(千錫九) 제씨 외 수인이 금번 전북 정읍에 在한 보천교 중앙 교실 내 교주 차천자께 알현(謁見)하고 이여 칠성단하(七星壇下)에 기도하고 십 만원을 배수(拜受)하야 귀진(歸晉) 후(后) 진정원(眞正院)을 건축할 예정으로 재작(再昨) 15일 진주를 떠나 정읍으로 향하다.

이상 두 가지 자료에 언급된 조우제를 비롯한 정준교, 윤병은, 오경표, 신현수, 강대익, 심두섭, 강상호, 정성호, 천석구 등 형평사의 주요 인물들은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당대 진주지역의 유명 인사들이었다.

이 가운데 진주 유지인 정준교는 심두섭과 함께 1919년 3·1 만세시위에 참여한 독립운동가이자 동아일보 진주지국장(1922.1~1923.10)을 지낸 언론인이었다. 그는 1923년 3월 24일부터 30일까지 열린 전조선청년당대회에 개인자격으로 참가할 만큼

당시 전개되던 청년운동에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

조우제는 경남 진주출신으로, 동아일보 진주지국 기자였으며, 청년운동, 노동운동, 사상운동, 신간회 등 모든 사회운동을 아우르는 활동을 전개하고 있었으며, 윤병은은 동아일보, 조선민보 진주지국 기자의 신분을 가진 보천교 신자였다.

오경표 역시 동아일보 진주지국 기자였으며, 진주유치원 학부형회 회계를 담당하고 있었으며, 진주청년회관 내에 설치된 소년원의 강사로 활동하였다. 또, 진주에서 형평운동을 주도한 천석구는 진주 사람으로 종이와 장판 등의 품목을 취급하는 가계를 경영하면서, 형평사 창립에 참여할 즈음에는 진주금주단연회, 진주저축계에 참여했던 사회운동가였으며, 1923년 5월 6일 강대창(姜大昌)·심두섭(沈斗燮)·정성호(鄭成鎬) 등과 함께 '보천교소년회'를 조직하여 활동했던 인물이다.

신현수는 정준교, 강대창 등과 함께 1924년 10월 23일 신사상 연구와 무산계급의 지식계발을 목적으로 한 사상단체 '동우회'(同友會)를 조직하였다. 강상호와 함께 형평사 본사 이전문제로 빚어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경향 각처를 다니면서 두 세력이 합치되도록 노력하였다. 그러나 이후 신현수는 인권운동으로 시작된 형평운동이 공산주의 운동으로 전환되면서 그는 형평사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인다.

강상호는 형평사를 조직한 인물이었으며, 초대 동아일보 진주지국장을 지냈다. 북성회 강연단이 진주에 왔을 때는 강연단 후원회의 사교위원을 맡았다.

정성호는 심두섭·강대익·조우제 등과 함께 진주청년회원으로 활동하였다. 강대창이란 이명을 쓰는 강대익은 보천교인으로 한때 동아일보 진주지국장을 지낸 언론인이었으며, 1923년 6월 24일 진주 보천교 진정원 청년회 임시총회에서 평의원으로 선출되었으나, 1923년 8월경 보천교 진정원을 탈퇴하였다. 1928년 1월 12일에 개최된 신간회 제1회 총무 간사회에서는 민중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것을 문의하도록 '민중문의소'(民衆問議所)를 설치하였는데, 이 때, 인사계를 담당하였다. 2월 11일에는 진주기자단 임시총회에서 의사진행을 주재했고, 이 때, 2월 4~5일 부산에 있었던 경남기자대회 상황과 결의사항을 보고하였다.

이상으로 살펴 본 진주지역 사회운동가들의 활동내용을 정리하면 〈표5〉와 같다.

〈표5〉 보천교 본소를 방문한 진주지역 사회운동가

이름	직업	활동 내용과 분야	성향	비고
조우제	(동)진주지국장	진주청년회원/노동공제회원/형평사 간부/ 사상단체 '동우회'결성/신간지회 간사/진주농민조합/진주소비조합 발기	사회주의자	보천교도
정준교	(동)진주지국장	전조선청년당대회 참석		
윤병은	(동)진주지국과 조선민보기자			보천교도
오경표	(동)진주지국기자	진주유치원 학부형회/소년원 강사/재무		보천교도
신현수	(동)진주지국기자 (조)진주지국장	진주형평사 창립축하, 운동비용 기부	사회주의자	보천교도
심두섭		3.1만세시위 참가/진주청년회원/보천교소년회 부회장	민족주의자	보천교도
강상호	(동)진주지국장	형평사 발기/북성회강연단 후원회 사교위원		
정성호		진주청년회원/보천교소년회 총무		보천교도
천석구		보천교소년회 조직/금주단연회/진주저축계		보천교도
강대창	(동)진주지국장 진양상회	진주형평사 창립축사/보천교진정원평의원/ 신간지회간사/동우사조직/진주소비 조합발기위원과 취지정관 기초위원/보천교소년회 회장	사회주의자	보천교도 (1923년8 월경탈퇴)

*(동)은 동아일보, (조)는 조선민보

〈표5〉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진주지역 기자로 활동했던 언론인 대부분이 사회주의 사상을 지닌 인텔리이자 보천교도였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1923년 5월 6일에 조직된 보천교소년회 간부들이었다. 회장은 강대창(姜大昌)이었으며, 부회장과 학습부장은 심두섭(沈斗燮)이었다. 이밖에도 총무와 위열부장(慰悅部長) 정성호(鄭成鎬), 재무와 오락부장 오경표(吳景杓), 의사(議事)에 천석구(千錫九)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로보아 형평운동 초기까지는 형평사 간부들의 보천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바로 이러한 형평사의 인적구성은 보천교와의 연대관계를 추진하는데 용이하게 작용했을 것이다.

따라서 이들이 보천교의 선전비 대금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것이 교사 건축자금에 소용될 정도였다면 결코 적지 않은 액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 다음과 같은『동아일보』의 기사내용을 통해서 형평사와 보천교 양자간 관계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

> 일반 사회에서 사람다운 사람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가진 압박을 받아오던 전조선 삼사십만의 소위 백정계급은 "우리도 사람이다."라는 부르짖음으로 사회평등의 일대운동을 경상남도 진주에서 일으켰음은 당시 본보에 보도한 바이어니와 이래에 그 운동은 점점 구체적으로 확대되어 형평사를 조직하고 전조선의 같은 계급을 망라하여 조직적으로 운동을 일으키려고 우선 선전문 수 만장을 인쇄하여 각처에 배부하여 일치단결을 부르짖고 각지의 대표자를 모아서 지난 13일 진주좌(晉州座)에서 형평사 창립총회 축하회를 개최하기에 이르렀다. 이날 각 지방의 백정 대표자 백여 명과 기타 회원 오 백 여명이 모여서 성대한 축하식을 거행하였는데, 일본에 있는 북성회(北星會), 평문사(平文社), 점진사(漸進社), 적기사(赤旗社) 등에서 축전이 왔고, 내빈 측으로 노동공제회, 보천교 등의 축사가 있었다. 끝으로 상설회관과 자녀 교육문제에 협의가 있었다.

이날 형평사 창립축하식에 참석하여 축사와 함께 운동비용을 기부한 사람은 보천교 신자였던 진주사람 조우제였다. 이와 같이 형평사 학교설립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정읍으로 왔던 핵심멤버들과 창립축하식에서 축사를 했던 이들은 모두 경남 진주 사람들로 일부는 보천교 신자였으며, 일부는 진주지역 사회운동의 핵심인물들이었다.

이렇게 진주지역의 저명한 사회운동가들이 보천교 신자가 되었던 것은, 당시 시대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1920년대 초는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우리 민족이 구심점을 상실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때에 등장한 보천교의 '천자등극설'(天子登極說)은 보천교가 독립을 염원하며 암암리에 독립운동을 추진하는 민족종교라는 인식을 갖기에 충분하였다. 따라서, 형평운동 초기 보천교와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적극 추진했을 것이다.

그런데 이러한 보천교 신자들이 특히 경남에 많았다고 하는 것이 주목할 만하다. 보천교를 창시한 차월곡의 3남인 차봉남(車鳳南)에 의하면, 창립 당시 전라남도에 신자가 많았으나, 신자가 늘면서 이후에는 주로 경상도에 신자가 많았다고 하였다. 1936년에 발간된 『정읍군지』에도 이를 뒷받침하는 기록이 있다.

> 근래 어느 지방을 물론하고 각종 종교의 파당(派黨)과 문호(門戶)가 파다(頗多)하지만은 본(本) 군(郡)처럼 다문(多門), 다파(多波)의 종교는 별무(別無)할

것이다. 내지인측은 주로 불교를 신앙하고 조선인측은 기독교를 신앙한다. 그러나 보천교(普天敎), 무극교(無極道), 증산교(甑山敎) 등 종교유사단체의 본부가 본(本) 군(郡)에 유(有)한 만큼 한 가지 결함이라면 결함이오 자랑이라면 자랑인가? 각위(各位)의 판단에 미루어두고 보천교도가 제1위(第一位)를 점하엿스니 교도 중 본군 출생자는 희소(稀少)하고, 그 대개는 타도군(他道郡)으로부터 이주한 자들인대 그 중에 경상남북도(慶尙南北道)의 인(人)이 최다(最多)하고 기차(其次)는 기독교 분파인 천주공교(天主公敎)의 신도가 상당히 다수를 득(得)하엿스니 ……

형평사 창립축하식에 참석했던 보천교도 조우제는 비백정 출신 간부인 신현수와 함께 본사를 경성 또는 대전으로 이전할 것을 제안할 만큼 형평사 내 비중 있는 인물이었다. 이러한 사실들을 통해서 형평운동 초기 양자간 어느 한쪽에서 연대의 필요성을 느끼고 이를 추진했을 것이라는 추정이 가능하다. 이 두 단체와의 관계를 다른 측면에서 살펴보면 이렇다.

증산은 백정과 같이 빈천하고 어리석은 자들을 내 사람이라고 설파한 바 있다. 증산의 일대기를 그린 『대순전경』(大巡典經)에는 사회적으로 억압받고 빈궁한 자들을 천하게 대하지 말 것을 당부하는 법언이 여러 차례 나오고 있다. 법언에 나오는 이러한 사례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이 때는 해원시대라. 사람도 이름 없는 사람이 기세를 얻고, 땅도 이름 없는 땅에 길운이 돌아오느니라.

양반을 찾는 것은 그 선령의 뼈를 오려내는 것 같아서 망하는 기운이 이르나니, 그러므로 양반의 기습을 속히 빼고 천인을 우대하여야 속히 좋은 시대가 이르니라.

부귀한 자는 빈천함을 즐기지 아니하며, 강한 자는 잔약함을 즐기지 아니하며 지혜로운 자는 어리석음을 즐기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나는 그들을 멀리하고 오직 빈천하고 병들고 어리석은 자를 가까이 하노니 그들이 곧 내 사람이니라.

부귀한 자는 자족하여 그 명리를 증대하기에 몰두하여 딴 생각이 나지 아니하니 어느 겨를에 나에게 생각이 미치리오. 오직 빈궁한 자라야 제 신세를 제

가 생각하여 도성덕립을 하루바삐 기다리며 운수조일 때마다 나를 생각하리니 그들이 내 사람이니라.

불의로써 남의 자제를 유인치 말며 남의 보배를 탐내지 말며 남과 서로 싸우지 말며 도한(屠漢)과 무당(巫堂)에게 천하게 대우하지 말라.

즉 형평사에서는 보천교의 민족주의적 측면 외에 도한을 천하게 대우하지 말라는 증산의 가르침과 사상에 공명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시간적·공간적 차이가 있으나 1925년 4월 형평사전조선대회에서 토의될 사항 중의 하나가 종교에 관한 문제였다는 점과 1928년 1월 7일 강원도 원주형평사 정기총회에서 형평운동의 본질과 위배되는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를 단절키로 한다는 결의도 참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증산교의 후신인 보천교에 대한 인식이 상당히 긍정적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진주지역 사회단체에서 형평사와 보천교의 관계를 단절시킬만한 사건이 있었다. 형평운동이 일어났을 때 진주노동공제회를 비롯한 진주청년회와 천도교청년회, 기독교청년회, 천주교청년회, 불교청년회가 연합하여 보천교에 대한 반대운동을 전개하기로 하고 3일간 공격연설을 하고 반대선전문을 각 처에 배포하기로 결정하였다. 노동공제회에서는 형평사를 공격한 농민들의 배후에 지주들과 보천교 세력이 있다고 보았다. 즉 지주들은 소작운동을 주도하는 진주노동공제회의 간부들을 곤경에 빠뜨릴 목적으로 "진주노동공제회 간부들이 형평사를 지지하는 대가로 5천여 원을 받았고, 형평사 발기인들 몇 사람도 돈을 받았다."고 뜬소문을 퍼뜨려 농민들을 선동한 것으로 본 것이다. 또 보천교와 관련이 있다고 본 것은 보천교 신자인 『조선민보』 진주지국 기자 윤병은(尹炳殷)이 이러한 사실무근의 기사를 기재함으로써 공제회원들에게 모욕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보천교와 사회단체의 유대관계가 멀어진 결정적 계기가 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23년 6월 7일 진주 노동공제회에서는 임원 보결선거를 조우제의 사회로 진행하고 있었다. 이와 같은 여러 정황으로 보아 보천교와 형평사간 어느 정도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상황에서 각 지역 사회운동계에서는 세간에서 자주 회자되는 보천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으로 말미암아 형평운동에서 보천교를 분리시킬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을 것이다.

이상으로 서술한 형평사와 보천교와의 관계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비록, 보천교와의 연대가 실패로 돌아갔으나 성격이 전혀 다른 두 조직이 형평운동 초기 연대를 구상했을 것이라는 점은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다. 양자와의 관계를 기록하고 있는 사료가 없는 만큼 여러 정황을 근거로 추론하면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첫째, 형평사는 1920년대 전반까지 전개된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에 주목했을 가능성이 크다. 1920년대 초는 3·1운동이 실패로 돌아간 뒤, 우리민족이 구심점을 상실하고 있던 시기였다. 이 시기는 상해임시정부가 우리민족 독립운동의 중추적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었던 때였다. 그러나 보천교는 1925년 '시국대동단'이 결성되면서부터 사이비종교라는 인식이 세간에 널리 퍼지기 시작하였다.

둘째, 보천교에서는 교도인 조우제를 통해 형평사 창립 축하식에 축사와 함께 운동비용을 기부함으로써 백정들의 차별철폐운동을 간접적으로 지지하고 있었다.

셋째, 진주지역 사회운동 핵심인물 가운데 보천교 신자가 다수 있었다는 점이다. 학교설립 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32명의 사회운동가들이 대거 정읍을 방문했다고 하나, 일간지에 보도된 인사는 조우제를 비롯한 정준교, 윤병은, 신현수, 강대창, 심두섭, 강상호, 정성호, 천석구 등이었다. 이 가운데 조우제, 천석구, 강대창, 심두섭, 정성호는 보천교 신자들이었다.

넷째, 백정들은 "도한과 무당을 천하게 대하지 말라."는 증산의 사상과 가르침에 공명했을 것이라는 점이다. 1925년 4월 형평사전조선대회에서 종교문제가 토의되고, 1928년 1월 7일 강원도 원주형평사 정기총회에서는 형평운동의 본질과 위배되는 종교기관에 대해서는 관계를 단절키로 한다는 결의도 있었다.

이상과 같은 정황 외에도 보천교를 신봉하는 상당수의 인사들이 당대 지식인을 대표하는 신문기자 출신들이었으며, 사회주의 사상을 수용한 인텔리였다는 점에서 형평사의 핵심멤버들의 보천교에 대한 인식은 상당히 긍정적이었을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인적구성과 인식을 바탕으로 연대관계를 추진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부록]

비 아세아국 제3과 관기고수(關機高授) 제32743호

대정 13년 11월 26일 관동청 경무국
임시보 제440호 철입명 동경치(東敬治)?

김좌진 군자금을 얻다

근년에 김좌진은 자금부족으로 부하를 해산하고 오로지 활동불능의 상태가 되었으나, 금년 봄 조선 내 보천교 교주 차경석과 연락하여 만주별동대로서 행동하게 되어 지난 10월 초순 교주 대표 모(某)가 영고탑에 와서 금 2만 여 원의 군자금을 줌으로써, 이 돈으로써 구 부하를 소집하고 삼분구(三盆口)에 근거를 두고 포교와 무장대의 편성을 계획하고 동지를 거느리고 동녕현에 들어가려고 했으나, 최진동의 동현 지나 관리 때문에(?) 체포되었기에 두려움을 품고 영고탑에 돌아와 연락자를 구하여 동현 지사의 매수운동을 하고 있다고 함.

김은 종래 독립단의 두목으로서 상당한 인망이 있으므로 그들이 상당의 군자금을 준비하고 부하를 초집하고 있어 다수의 참가자가 있겠으므로 보천교의 배경으로서 행동하려고 하는 그들의 장래는 상당히 주의를 요하는 것으로 인정된다.

發送先(발송처)

아세아국장 척식사무국장
조선경무국장
평안북도지사
길림, 하얼빈 각 총영사
하얼빈, 북경상해각내무사무관

【참고문헌】

태인의병[丙午倡義]의 핵심인물, 최익현(崔益鉉)과 임병찬(林炳瓚)

김영호, 「최면암 대마도유배일기」, 『항일운동가의 일기』, 서문문고, 1975.
박성수, 『독립운동사 연구』, 창작과비평사, 1980.
윤영근·최원식 편저, 『남원항일운동사』, 친우, 1985
조동걸, 「의병운동의 한국 민족주의상의 위치(상)」, 『한국독립운동사연구』, 1986.
김호성, 『한말 의병운동사 연구』, 고려원, 1987.
광복회전라북도지부, 『전북지역 독립운동사』, 1989.
전라북도, 『전북도지』제3권, 청웅제지, 1991.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전북의병사』상·하, 선명출판사, 1992
조지훈, 『한국민족운동사』, 나남, 1993.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건립위원회, 『전북지역 독립운동사』1994.
홍순권, 『한말 호남지역 의병운동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국, 1994.
김상기, 『한말의병 연구』, 일조각, 1997.
김경석, 「천추의 핏자국을 남긴 청강석이 되리라」, 『문화저널』, 1998.12
정옥자, 『우리 선비』, 현암사, 2002.
강길원, 「면암 최익현의 병오창의」, 『전북사학』제26집, 전북사학회, 2003.
한국철학사연구회, 『한국철학사사상사』, 심산, 2003.
홍영기, 『대한제국기 호남의병 연구』, 일조각, 2004.
이치백, 『돈헌 임병찬 선생』, (사)전북향토문화연구회, 2007.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자료집(의병운동)』, 2012.
전북향토문화연구회보 제134호, 『전북문화』, (사)전북향토문화연구회, 2014.
이석용의병장순국100주년기념사업추진위원회,『한말 의병활동에 대한 재인식』, 2014.
김종수,「돈헌 임병찬의 생애와 복벽운동」, 『전북사학』제44호, 2014.
정읍문화원, 「동학농민혁명 120주년특집」, 『정읍문화』제23호, 2014.
전북향토문화연구회, 「전북문화」제142호, 2014.12.
김재영, 『일제강점기 전북지역의 민족운동』, 2015.

조선 선비정신의 표상, 춘우정(春雨亭) 김영상(金永相)

김영상, 『춘우정유고』(정읍군 칠보면 무성리 필양사, 신축년)
김영채 등, 『태인지』, 1965.
송상도, 『기려수필(騎驪隨筆)』, 탐구당, 1971.
최현식, 『정읍원·사록(井邑院·祠錄)』, 신아출판사, 1996.
최현식, 『신편 정읍 인물지』, 신아출판사, 2007.
정읍문화원, 『춘우정선생순국100주년기념집 애국지사 김영상』, 2011.
한국문화원연합회전북도지회, 『전북의 향교와 서원』, 신아출판사, 2011.
호남고전문화연구원, 『전북선현문집해제』, 글사랑출판사, 2015.

민중이 민족해방운동의 주체가 되다

『3·1운동』, 국학자료원 현대사자료1, 1967.
『3·1운동 50주년기념논집』, 동아일보사, 1969.
민족운동총서편찬위원회, 『3·1운동』, 횃불사, 1980.
민족문화협회, 『민족운동총서8 학생운동』, 민족운동총서편찬위원회, 1981.
윤영근·최원식 편저, 『남원항일운동사』, 친우, 1985.
3··1운동70주년기념논문집, 『3·1민족해방운동 연구』, 청년사, 1989.
김정은, 「경남 합천의 3·1운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제3집, 1989.
박찬승, 「3·1운동의 사상적 기반」, 『3·1민족해방운동연구』, 청년사, 1989.
정연태, 「경남지방의 3·1운동」, 『3·1민족해방운동연구』, 한국역사연구회, 1989.
광복회 전라북도지부, 『전북지역 독립운동사』, 전북보훈지청, 1989.
전북지역독립운동추념탑건립위원회, 『전북지역독립운동사』, 신아출판사, 1994.
최현식, 『정읍항일운동사』, 정읍문화원, 1994.
민족사바로찾기국민회의, 『독립운동총서6 종교·교육투쟁』, 민문고, 1995.
김재영, 『내 고장 역사의 숨결을 찾아서』, 해와달(서울), 1996.
김민영, 『일제하 군산 옥구지역의 민족사회운동사』, 군산문화원, 1996.
전주서문교회백년사편찬위원회, 『전주서문교회백년사』, 쿰란출판사, 1999.
신용하, 『일제강점기 한국민족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2001.
주명준·정옥균 편저, 『전북의 3·1운동』, 전북인권선교협의회, 2001.
최현식, 『신편 정읍인물지』, 정읍문화원, 2007.
김재영, 「일제강점기 정읍지역의 민족운동과 사회운동」, 『정읍시사』, 2009.

박찬승, 『한국근현대사를 읽는다』, 경인문화사, 2010.
이치백, 「일제하의 독립운동과 전북인」, 『향토사연구』 제23집, 신아출판사, 2013.

아나키스트 백정기, 인간의 참된 해방을 위해 투쟁하다

무정부주의운동사편찬위원회, 『한국아나키즘운동사』, 1978.
전라북도, 『전라북도지』제3권, 청웅제지, 1991.
정화암, 『어느 아나키스트의 몸으로 쓴 근세사』, 자유문고, 1992.
김삼웅, 『일왕 폭살을 꾀한 아나키스트 박열 평전』, 가람기획, 1996.
이덕일, 『아나키스트 이회영과 젊은 그들』, 웅진닷컴, 2001.
국민문화연구소, 『항일혁명가 백정기 의사』, 2004.
구송희 외, 『한국아나키즘 100년』, 이학사, 2004.
김삼웅, 『단재 신채호 평전』, 시대의창, 2005.
이호룡, 『아나키스트들의 민족해방운동』, 독립운동사편찬위원회, 2008.
조광해, 『항일혁명투사 구파 백정기』, (사)백정기의사기념사업회, 2009.
김재영, 「아나키스트 백정기 의사의 항일운동」, 『전북문화』, 2014.
김재영, 『일제강점기 전라북도』(공저), 전북도교육청, 2014.
김재영, 『일제강점기 전북지역의 민족운동』(근간), 2016.

6·10만세운동의 주역, 향산(香山) 이동환(李東煥)

전라문화연구소, 「향산 이동환의 생애와 유저」, 『전라문화논총』제1집, 전북대, 1986.
최병운, 「향산 이동환의 생애와 유저」, 『전라문화연구』제6집, 1992.
이동환, 「6·10만세 체험록」(영인본), 『전라문화연구』제6집 권말부록, 1992.
광주학생독립운동동지회, 『광주학생독립운동사』, 성문당, 1996.
동학농민혁명기념사업회, 『전북의 역사와 문화』, 서경문화사, 1999.
한국학중앙연구원, 『향토문화전자대전
국사편찬위원회,『한국사49/민족운동의 분화와 대중운동』, 탐구당, 2001.

일제강점기 제1의 종교, 보천교에서 민족운동을 전개하다

대총상삼랑(대총상삼랑), 「朝鮮の政治制度及社會事業竝教育宗教の現像」
조선총독부 관방서무부 조사과 1923.5~8.

일제정보자료, 아세아국제3과관기고수(亞細亞局 第3課關機高授) 제32743호, 1924.
상해일본영사관, 『조선민족연람』, 1932.
촌산지순(村山智順), 『조선의 유사종교(朝鮮の類似宗教)』, 1935.
『개벽(開闢)』 신간 제1호, 1935.11.『보천교연혁사』상, 보천교중앙총정원, 1948.
보천교총정원·협정원·총령원, 『보천교연혁사』하권, 1958.
김정명 편, 『명치백년사총서-조선독립운동(제1권 분책, 민족주의운동 편)』, 1967.
조특보제11호(朝特報第11號), 「太乙教徒に關する調査報告の件」;
독립운동사전편찬위원회, 『독립운동사 자료집』11권, 1976.
홍범초, 「보천교 초기 교단의 포교에 관한 연구」, 『한국종교』제10집,
원광대학교 종교문제연구소, 1985.
최영년 지음·황순구 역주, 『속악유희(俗樂遊戱)』, 정음사, 1986.
채영국, 「정의부의 항일 군정활동」,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12집,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1988.
「김철수 친필 유고」,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89년 여름호.
이현희, 「북한이 보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북한이 보는 우리 역사』, 을유문화사, 1989.
역사문제연구소, 『다시 피는 녹두꽃』, 역사 비평사, 1994.
안후상, 「무오년 제주 법정사 항일항쟁 연구」, 『종교학연구』제15집,
서울대종교학연구회, 1996.
윤이흠·안후상·최종성·김정인, 『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 한림원, 1997.
안후상, 「보천교 연구 현황과 과제」, 『한국종교사연구』 제6집,
한국종교사학회, 1998.
안후상, 「보천교와 물산장려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9, 1998.
임혜봉, 『일제하 불교계의 항일운동』, 민족사, 2001.
친일인명사전편찬위원회, 『일제협력단체사전』, 민족문제연구소, 2004.
성주현, 「1920년대 초 태을교인의 민족운동」, 『일제강점기의 민족운동과 종교』
국학자료원, 2002.
김희곤,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식산업사, 2004.

형평사와 보천교, 연대 관계를 추진하다

비봉산인, 「정읍의 차천자를 방문하고」, 『개벽』제10집 38호, 1923.
『개벽』제35호, 1923년 5월호.

『조선 사상 통신』제88호, 1929년 1월 23일.
장봉선, 『정읍군지』, 이로재, 1936.
경상남도지편찬위원회, 『경상남도지』상권, 1959.
김준엽 · 김창순, 『한국공산주의운동사』제2권, 고려대학교 아세아문제연구소, 1969.
김중섭, 「1920년대 형평운동의 형성과정」, 『동방학지』, 1988.
「김철수 친필유고」, 『역사비평』, 역사비평사, 1989년 여름호.
이상호, 『대순전경』, 증산교본부, 1991.
강만길 · 성대경, 『한국사회주의운동 인명사전』, 창작과비평사, 1996.
윤이흠·안후상·최종성·김정인, 『일제의 한국민족종교 말살책』, 한림원, 1997.
박영재, 『이른 아침 잠깐 앉은 힘으로 온 하루를 보내네』, 운주사, 2001.
김재영, 「보천교 천자등극설 연구」, 『한국종교사연구』제9집, 한국종교사학회, 2001.
김경현 편, 『일제강점기 인명록』 I , 민족문제연구소, 2005.
김재영, 「일제강점기 형평운동의 지역적 전개」, 전남대학교박사학위논문, 2007.
김재영, 「1920년대 보천교의 민족운동에 대한 경향성」, 『전북사학』제31집, 2007.